Life p/16

반 조리 식품 출시 잇따라

metro
메트로 2014년 9월

Entertainment p/20

연예인 8명 리얼 직장체험

대구 창조경제 조성 부지 방문한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 대구 북구 창조경제단지 예정부지(옛 제일모직)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인사들과 박수를 치며 한국판 실리콘 밸리 조성을 축하하고 있다. <관련기사6면> /뉴시스

이통3사 스포츠 마케팅 전력투구

LGU+ 소치 송수신 담당
SKT 인천 AG 주관사
KT 평창 동계 후원사로

이동통신3사가 스포츠 마케팅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올해 대형 스포츠 행사는 2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6~7월 '2014 브라질 월드컵', 9~10월 진행되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등이 있다. 여기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까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이통3사도 대형 스포츠 행사에 맞춘 스포츠 마케팅 행보에 분주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첫 스타트를 끊은 것은 LG유플러스였다. LG유플러스는 소치 동계올림픽의 국내 방송 송수신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소치 현지에서 국제통신망으로 전송된 방송을 LG유플러스 안양방송센터에서 받아 전용망을 통해 HD급 고화질로 지상파 방송 3사에 제공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선수 금메달 획득 시 해당 날짜의 러시아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 요금을 무료로 제공했다. LG유플러스의 스마트월렛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선 소치 올림픽 기념 복권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후 LG유플러스의 바통을 SK텔레콤이 이어받았다. SK텔레콤은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과 '제11회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의 주관통신사 공식후원사로 선정됐다.

SK텔레콤과 조직위원회는 '최고의 IT 대회' 구현을 인천 아시안게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특히 SK텔레콤과 조직위는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공식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SK플래닛의 SNS 서비스인 '틱톡'을 선정했다. 3만여 명의 대회 관계자들은 '틱톡' 서비스를 통해 행사 관련 공지, 업무 지시와 정보 공유 등을 주고받게 된다.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셈이다.

SNS 서비스 외에 무선뿐 아니라 유선까지 포함한 다자간 회의통화를 지원하는 'T그룹'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관계자 등 회의통화가 잦은 해외 VIP 등을 대상으로 'T그룹'은 영문 버전도 지원, 국내의 앞선 정보통신기술(ICT)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리는 주경기장 북문광장에는 기업홍보관도 운영한다. SK텔레콤 기업홍보관은 400㎡ 공간에 대한민국 ICT 역사를 한 눈에 보여주는 모바일 오케스트라부터 미래를 보여주는 가상현실 체험까지 15개의 첨단 아이템을 선보인다.

KT는 이통3사간 치열한 경쟁 속에 국민 최대 관심사로 꼽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통신 부문 공식후원사로 선정됐다.

지난 7월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KT 간 공식후원사 협약식에 이례적으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까지 참석하며 눈길을 끌었다. 황창규 KT 회장은 "대한민국 대표 통신사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조직위·IOC와 협력해 올림픽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한 '기가(GIGA)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후원사로 선정됨으로써 ▲통신 부문 독점적 제품공급 권리 ▲쇼케이싱과 라이브 사이트 등 프로모션 활동 권리 ▲스폰서 로고 노출 권리 ▲대회 중 숙박·입장권 우선 구매권, AD카드와 교통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권리를 갖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스포츠 마케팅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 홍보 효과나 자사의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특히 통신시장도 더이상 국내 시장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진출로 눈을 돌린 만큼 신시장 창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흥기자

이정현, 추석 상여금 반납

"국민 비난받고 이 돈 쓸 수 없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여야 의원 전원에게 지급된 추석 상여금 387만8400원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5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상여금이 든 흰 봉투를 들어 보이면서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이 돈을 쓸 수가 없다"며 "오늘 국회의장실에 이 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 가장 많이 들었던 비난 중 하나가 추석 보너스였다"며 "387만원 받고 배부르냐, 일도 안 하면서, 국회에서 민생에 필요한 법안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보너스 챙기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당당하고 떳떳하냐는 질책을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최고위원이 추석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함에 따라 다른 여야 의원들 중에서도 추가로 상여금 반납 사례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조현정기자

KB금융 신뢰회복 시급하다

기자 수첩

김 민 지
<금융시장부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직무정지 3개월'로 최종 확정하면서 KB금융은 큰 혼돈에 빠졌다. 국민은행장에 이어 KB금융지주 회장마저 경영 공백 상태에 놓이는 등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경영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임 회장은 사퇴를 거부한 채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3개월 동안 직무를 볼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안팎으로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KB금융의 경영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관련해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도 이날 임 회장에 대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때 리딩뱅크로 주목받던 KB금융이 잇따른 악재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막장 드라마처럼 이어지는 KB금융 사태의 근원은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가 단초로 작용했다. 이건호 전 행장은 KB금융의 전산시스템을 IBM에서 유닉스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금감원에 신고하는 등 줄 행동을 보였다. 경영진 스스로 은제 해결 능력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KB의 권력다툼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은행 실적은 올해 상반기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올 상반기 국민은행은 546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당기순이익 규모만 보면 국민은행보다 총자산 규모가 훨씬 작은 기업은행(5778억원)에도 못 미친다. 시장점유율도 꽤 떨어졌다. 이 때문에 KB금융의 신뢰 회복과 경영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낙하산 인사의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 채우만 바뀌고, 역할은 그대로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뢰 회복과 인사에서 새 틀을 짜야 한다.

김태호 "국회 개판 오분전…빨리 정상화"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회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면 이시안게임 기간만이라도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가 고민해주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15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잔칫집에 손님을 불러 놓고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지금 '개판 오분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회 기간 실제 45개국 아시아인이 우리나라와 인천을 주목하게 된다"며 "여당도 '에게모니 싸움'을 접고 국민을 위해, 또 소중한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가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 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15일 정식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대북 전단살포 北 주장 전혀 근거 없다"

●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군을 동원해 대북 전단살포를 지원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거듭 일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북한이 마치 우리 정부나 군이 대북전단 살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담화를 발표했는데, 우리 군은 2004년 6월 15일 이후로 대북 심리전을 중단한 상태"라며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오늘 국회서 담뱃값 인상 찬반 토론회

●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16일 열린다.

새누리당 윤영석 강기윤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리는 '담배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는 담배 세금 인상 찬성 측 부산대학교 ○병호 교수와 인상 반대 측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선다.

● 방만 경영 공기업 구조조정 ● 공무원 면책·인센티브 조항 신설

與, 전방위 규제개혁법 추진

새누리당이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에 전방위로 적용되는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공기업의 경영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방만 경영으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공기업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6일 규제개혁분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차례대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공기업·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규제개혁특위 관계자는 "국민 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는 규제비용총량제 일몰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의 규제 개혁 방안의 적용대상을 행정부처 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이 계속성,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비상설 기관 형태인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장관급 상설기구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례를 통한 규제 뿐 아니라 행정부처의 일상화된 '행정지도'가 규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규제로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법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책임을 면해주는 공무원 면책 조항과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AG 경기장 시찰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지도부 등 의원들이 15일 오전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경기장 시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선 탈당설… 배후론까지 등장

"압박·협박용일 것" vs "진짜 탈당 가능성 크다"— 야권 술렁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야권이 술렁이고 있다.

실제 탈당 가능성에 대해 박 원내대표 측과 그의 퇴진을 촉구하는 의원들 사이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배후설까지 제기, 논란을 증폭시켰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등 논란이 된 주요 사항의 논의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일부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박 원내대표가 탈당을 한다면 혼자가 아니라 김 전 대표 등 비주류 세력과 함께 나와 사실상 분당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닐 것", "(퇴진 촉구에 대해) 압박용이나 협박용으로 한 말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의원은 15일 "2007년에 김한길 전 대표가 탈당한 경험이 매우 아프게 다가온다.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탈당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중진모임에 참석한 원혜영 의원도 "탈당할 리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박 원내대표 측은 "진짜로 탈당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전했다.

한편 외부와 연락을 끊고 고심 중인 박 원내대표는 하루 이틀 더 고민한 뒤 본인의 거취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들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모여 당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정세균·문희상·박지원·박범계·이석현·원혜영·김성곤·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작은 사진은 박영선 원내대표. /연합뉴스

태권도 승부조작 사실로

협회 사무국장 연루… 심판 등 무더기 입건

지난해 학부모의 자살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태권도의 승부조작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5월 벌어진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태권도 핀급 대표 선발전에서 서울시 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이 연루된 조직적인 승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승부조작을 주도한 협회 전무 김모(45)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협회 심판부위원장 지모(49)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협회가 200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40명의 임원에게 회의비 11억원을 부당지급한 혐의 등으로 협회장 임모(61)씨 등 11명을 입건했다.

조사 결과 상대 선수 아버지인 모 대학 태권도학과 교수 최모(48)씨가 중·고교 대학 후배인 모 중학교 태권도 감독 송모(45)씨에게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입상 실적을 만들어달라"고 청탁하면서 승부조작이 시작됐다.

경찰은 학교로 밀접한 연이 형성돼 있는 태권도계의 특성상 학연 때문에 승부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28일 열린 전국체전 태권도 대표 3차 선발전에서 5대 1로 앞선 전모(17)군이 50초 동안 무려 7개의 경고를 받고 반칙패 했다. 경기 직후 패배한 전군의 아버지(47)는 편파판정 때문에 억울하다며 며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국화와 기자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 광장에서 열린 국화 직거래 장터를 찾은 어린이들이 국화 사이를 걷고 있다. 서초구는 관내 화훼농가에서 생산한 국화를 전시 판매하는 '가을 맞이 국화 직거래 장터'를 오는 10일까지 개최한다. /연합뉴스

특전사, 이번엔 전기고문식 가혹행위

후임 하사 2명 입술에 발전기 갖다 대 충격 가해

특전사 소속의 한 중사가 후임 하사 2명에게 '전기고문식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15일 "제1공수특전여단 A 중사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6회에 걸쳐 부대 안에서 B 하사와 C 하사의 입술에 휴대용 무전기에 쓰이는 비상전원 발전기를 갖다대는 전기충격을 가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A 중사는 임무 숙지가 미흡하고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런 방식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A 중사는 C 하사와 또 다른 D 하사를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하사들은 A 중사가 두려워 1년 넘게 입을 닫고 있다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자 뒤늦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혜기자

"21일은 차 없는 날" 15일 오전 서울광장 앞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투어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14 서울 승용차 없는 날(주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올해 승용차 없는 날은 오는 21일이다. /연합뉴스

'유병언 측근' 전양자 혐의 인정

"횡령·배임 적극 나서지 않았다" 선처 호소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심리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헤르메스의 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다혜기자

"고학력일수록 여성 취업 어렵다"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서울시는 교육개발원의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연계 취업통계조사'를 인용, 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졸업생의 남녀 취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여성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았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대학 취업률은 남녀가 72%로 같았고, 4년제 대학 졸업 취업률은 남성이 55.6%로 여성(51.3%)보다 조금 높았다.

그러나 산업대 취업률은 남성 64.9%, 여성 58.8%, 일반대학원은 남성 68.9%, 여성 58.5%로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윤다혜기자

'한전 돈봉투' 이현희 전 서장 집 압수수색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한전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한 이현희 전 청도서장의 대구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이 전 서장의 집과 차량을 수색하고 이 전 서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 전 서장의 지시를 받고 돈 봉투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한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전모 계장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전 서장이 한전 측으로부터 받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한전은 추석 전인 2일과 연휴기간인 9일 이 전 서장을 통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 7명에게 100만~500만원씩 총 1700만원을 살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다혜기자

종로구 호텔 2곳 짓기로

서울 종로구에 관광호텔 2곳이 새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 일대에 약 400실 규모의 관광호텔 2개를 건립하는 계획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로구 관수동 155-1번지 일대에는 지하 5층~지상 15층 객실 396실 규모의 호텔이 건립된다.

또 종로5가 321, 19번지 일대에는 지하 3층~지상 20층, 객실 432실 규모의 호텔이 신축된다. /윤다혜기자

'9억대 리베이트' 제약사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 구매 대가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태평양제약 대표이사 권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박모(51)씨 등 의사 10명과 병원 구매 담당 육모(47)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적발됐다. 압수품 모습. /연합뉴스

metro Russia

рьё для завода
зут из Донецка

metro Brazil

9% número de
rsitários forma

대학교 졸업생 수 10년만에 감소

브라질 교육 연구소(Inep)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브라질 대학교 졸업생 수는 99만1000명으로 105만명을 기록했던 전년 대비 5.9% 감소했다. 이는 2003년 이후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수치다. 이들 중 23%인 22만9271명이 공립 대학을, 77%인 76만 1732명은 사립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브라질에서 대학 등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상파울루로 190만 명이었다.

metro Mexico

n los empleados
más promoción

근로자 '승진 의지' 세계 2위

전 세계에서 멕시코 직장인의 승진 의욕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헤드헌팅 업체 맨파워는 지난 2분기에 실시한 '워크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승진 의지가 가장 큰 국가는 인도(60%)였다. 2위는 멕시코(47%), 3위는 브라질(43%)이 차지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신흥경제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업체는 세계 각국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승진 가능성 등을 비교해 순위를 매겼다.

metro France

긴급 출산 산모 도운 지하철 여직원 화제

프랑스 파리에서 한 지하철 직원이 승객의 출산을 도와 화제다.

최근 지하철 여직원 비르지니는 뜻하지 않게 간호사가 됐다. 한 여자 승객이 지하철에서 양수가 터져 그자리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다.

비르지니는 "다른 직원들과 낮 12시 30분쯤 지하철 가교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 벽 한쪽에 사람들이 한 여성을 둘러싸고 모여 있는 걸 봤다. 당시 여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보여 상황을 물으니 양수가 터졌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듣고 바로 115에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비르지니가 산모를 만난 당시 여성은 5분마다 산통을 느끼고 있었고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있는 상황이었다. 비르지니는 "산모의 진통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강도가 세졌다. 그러던 중 산모가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고 우린 곁에서 바로 아이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후 옷을 깔고 주변에 커튼을 쳐 보이지 않도록 만든 비르지니는 이후 산모를 벽에 기대 앉힌뒤 호흡법을 가르쳐주며 분만과정을 함께 했다. 산모는 이미 네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에 아기는 4분 만에 나왔다.

비르지니는 "아기가 나오자 산모가 딸인지 아들인지를 물었다. 남자 아기라고 말하자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기쁨을 알렸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현재 산모는 병원에 있으며 그는 비르지니와 지하철 직원들에게 퇴원 후 꼭 찾아뵙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렐리 사로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모스크바 지하철을 찾잔 세트로

왕립자기제작소 '황실 도자기 전시회' 개최… 푸틴 하사품 등 인기 높아

최근 러시아왕립자기제작소가 러시아 황실의 도자기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황실 도자기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 디렉터 따찌아나 뜨레비치는 "예로부터 예술성이 뛰어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러시아 황실에서는 도자기의 원료인 고령토를 도네츠크에서 수입해왔다"며 "도네츠크는 기후 덕분에 우수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이 생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전시회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건설된 러시아왕립자기제작소에서 생산된 다양한 도자기가 전시돼 있다"며 "황실에서 사용한 도자기와 모스크바 지하철을 테마로 한 찻잔 세트, 정교한 도자기 인형 등이 눈 여겨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왕립자기제작소는 1744년 표트르 대제의 딸인 예까쩨리나 여제의 명령으로 세워졌다"며 "러시아 최초의 도자기 전문 공장이자 유럽에서 세 번째로 건설됐기 때문에 전통과 역사가 깊은 곳"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왕립자기제작소는 1825년부터 1855년까지 알렉산드르 황제와 니콜라이 가문의 도자기를 전담 생산했다. 특히 1900년대 초 러시아 혁명 시절에는 소비에트적 특징을 담은 도자기를 주로 만들었다.

뜨레비치는 "이번 전시회에 나온 도자기는 모두 진품"이라며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 많아 전시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프랑스 원로 작가 모리스 드뤼옹에게 하사한 도자기 세트와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극찬했다고 알려진 찻잔 세트가 관람객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고 했다.

현재 러시아왕립자기제작소에서 생산된 아름다운 도자기는 특별 주문을 통해 미국과 동남아시아, 아랍에미리트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뜨레비치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회를 열어 러시아 도자기의 우수성과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했다.

/이고리 카라소프 기자 정리=조현미기자

“아시아 최고 경주대회로 만들 겁니다”

사람이야기

■슈퍼레이스 김준호 대표

슈퍼레이스 ‘모터테인먼트’로…‘한국의 나스카 경주’ 꿈꿔

우르릉 거리는 배기음, 박진감 넘치는 질주, 늘씬한 모델들, 신나는 록 콘서트 – 이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있다. CJ그룹이 후원하는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가 바로 그 무대다. CJ그룹은 2006년 코리아 GT 챔피언십 4전부터 타이틀 스폰서로 참가했으며 2007년에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으로 대회 명칭을 바꿔 지금까지 후원해오고 있다.

이 행사를 이끌고 있는 수장은 CJ그룹 산하 (주)슈퍼레이스의 김준호 대표(42·사진)다. 지금은 많은 발전을 했다는 평가지만 김 대표 부임 초기에는 주어진 숙제가 많았다.

“모터스포츠의 대중화가 시급하다고 봤어요. 더 많은 이들이 모터스포츠 경기를 찾아야 대회가 활성화된다는 판단에서였지요. 그래서 재미있는 모터스포츠, 즉 ‘모터테인먼트’를 만들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2012년 처음 시도된 ‘나이트레이스’다. 태백레이싱파크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기존 레이스와 달리 해가 진 저녁부터 본격적인 승부에 들어가 한밤중까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관람객들은 레이스와 더불어 록밴드들의 공연을 즐기며 환호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7000여명의 관람객이 몰리는 대성황을 이뤘다.

“메인 클래스(슈퍼6000 클래스)의 활성화가 뿌듯합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에는 이 클래스 참가차량이 5~6대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0대 정도로 늘었어요.”

참가차량을 늘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억원짜리 경주차를 직접 만들어 팀에 공급했고, 유지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많은 팀에서 참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슈퍼레이스를 미국 나스카 경주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큰 배기량의 양산차 차체 베이스 경주차가 한 데 달리는 모습을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진 것 같아요.”

김 대표는 스톡카가 해외에 진출하기에 유리한 점에 주목했다. 포뮬러 경주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경주차를 제작할 수 있고, 경주차들이 단일화 되어서 드라이버의 실력이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 것도 흥미로운 요소다.

슈퍼레이스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다. 2010년 일본 오토폴리스 경기장에서 첫 해외 레이스를 연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에는 일본과 중국에 동시 진출해 한국의 모터스포츠를 알렸다. 나아가 2016년에는 중국과 단일 클래스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국내 모터스포츠의 해외 진출은 국내외에서 동시에 효과를 봤다. “과거에 비해 미디어 노출이 최대 5배 정도 늘어났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경주장이 멀더라도 뉴스 등을 통해 경기 소식을 접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보니 대회 스폰서가 늘어났다. 석유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 더불어서 대회에 참가하는 팀에게도 스폰서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다.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CJ 계열사들도 홍보효과를 톡톡히 봤다.

지난해에는 중국 현지에 슈퍼레이스 경기가 중계되면서 11억 인구에 한국 모터스포츠를 알렸다. 김 대표는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중에 해외에 경기가 중계되는 건 아마 슈퍼레이스뿐일 것”이라고 자부한다.

“앞으로는 대회 스폰서뿐 아니라 각 팀의 스폰서까지 패키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팀의 재정이 탄탄해진다면 경기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 외에 각종 소비재 업체들이 스폰서로 참여한다면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김준호 대표는 인터뷰 내내 미국 나스카 경기를 자주 언급했다. 그 경기처럼 수많은 경주차들이 떼 지어 달려 나가는 장관을 한국에서도 연출해보고 싶은 것이 그의 꿈이다.

“아시아 최고의 레이스로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의 나스카 경주’라는 말도 들어보고 싶고요. 조만간 그 꿈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정의혁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소프트웨어 공감 토크콘서트 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그린팩토리 커넥트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네이버가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소프트웨어 공감 토크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 /미래부 제공

SK C&C, 중동 시장 진출

사우디서 ‘대학 전용 e-러닝 시스템’ 오픈

SK C&C가 중동 최초의 대학 전용 e-러닝 시스템을 선보였다.

SK C&C는 70억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자잔대학교 e-러닝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잔대학교는 자체 e-러닝 교육 체계 확립을 위해 2012년 아랍계 대학 최초로 SK C&C와 함께 e-러닝 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했다. 지난해에는 SK C&C의 스마트 러닝 솔루션인 ‘러닝-온(Learning-On)’ 기반의 ‘자잔대학교 e-러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SK C&C는 이번 사업에서 러닝-온을 바탕으로 강의실 수업과 e-러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를 구현했다.

자잔대 e-러닝 시스템에 적용된 러닝-온은 SK C&C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으로, 아시아 최초로 국제 e-러닝 컨소시엄의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다.

도지헌 SK C&C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자잔대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중동 지역의 교육 IT서비스 시장 진출 속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가비아, 혁신·안정적 서비스로 흥행질주

국내 도메인 신규등록 공인 1위 차지

스마트폰 등장으로 온라인과 모바일 창업자들이 증가하면서 국내 최대 도메인 호스팅 업체 가비아(대표 김홍국)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올해 16년차 IT 기업인 가비아는 인터넷 사업의 기반인 도메인과 웹사이트 제작, 호스팅 등 기타 솔루션 개발 등의 인터넷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다. e러닝·동영상·쇼핑몰·이미지 등 고부가가치 호스팅은 물론 업무 통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가비아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등장으로 QR코드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등 사업 영역을 세분화해 올 상반기 매출액 398억 900만 원, 영업이익 46억 2100만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성장은 서비스 품질 개발과 이용자들과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결과다. 가비아는 서버 장비와 부품, IDC 현장 지원 1년 보증, 호스팅 품질보장제 도입 등으로 이용자와 신뢰도를 높였다. LG U+와 기가 광통신망 연결, 일일전송량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안정성도 확보했다. 또 365일 24시간 고객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홈페이지 인프라의 유지보수, 보안 서비스를 결합시킨 ‘홈페이지 관리대행’ 상품을 새롭게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기업솔루션에 필수인 전자결재 서비스에 근태·휴가관리 기능도 추가됐다.

이에따라 가비아는 현재 총 65만 2000여개를 보유한 도메인 부문과 약 12만여명의 고객을 보유한 호스팅부문을 중심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인 ICANN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도메인 등록 업체로써 국내도메인 신규등록 공인 1위를 자지하고 있다.

/정생호기자 ysw@

‘심장호흡재활의학회 우수구연상’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윤태식 교수팀 수상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윤태식(사진) 교수팀이 최근 개최된 대한심장호흡재활의학회에서 ‘급성 뇌졸중 환자에서 최대 기침 유량의 임상적 의의’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논문은 급성 뇌졸중 환자의 최대 기침 유량을 측정해 기도 흡인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재활훈련으로 흡인성 폐렴 등 호흡기계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로 학회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윤 교수는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 개선 전문의로서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진료뿐만 아니라 관련 학회에서도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market index <15일>

코스피	코스닥
2035.82 (-6.04)	565.77 (-4.63)

금리	환율
2.60 (-0.01)	1036.80 (+4.80)

뉴스&뉴스

올레tv, VOD 이용 월 3억회

● KT의 IPTV 서비스 올레tv는 이용자들의 다시보기(VOD) 월 이용횟수가 3억회를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올레tv는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VOD 누적 이용횟수가 35억회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레tv에 따르면 전체 고객 10명 중 7명(69%)은 "신규 가입 후 일주일 이내 에 VOD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VOD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TV 다시보기(76%)를 가장 먼저 이용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월드컵 조별 예선 생중계

●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조별 예선 경기가 대한극장에서 생중계된다.

라이엇 게임즈는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하 롤드컵) 조별 예선 전 경기를 서울 대한극장에서 생중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극장 7층 11관에서 진행되는 현장 관람 이벤트는 각각 18일~21일과 25일~28일에 열린다. 라이엇게임즈는 경기 생중계뿐 아니라 승부 예측하기, 샷건게임, 1on1 퀴즈, 코스플레이 및 포토존, LOL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를 병행할 예정이다.

조별예선 경기는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분산돼 열리며 8강전은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 4강은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은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정은미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수송동) 수송빌딩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욱
편 집 국 장	조인호
광 고 문 의	02)721-9858 3
독 자 센 터	02)721-9801

2005년 1월 31일 등록 서울특별시 가00256

삼성·LG '세탁기 파손' 논쟁 검찰로

1년만에 분쟁 재발·매번 소송전 이어져
스스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약화 지적도

가전업계 라이벌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파손 논란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고 경영자(CEO)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파손된 세탁기 중 한 대를 현재 베를린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초강수를 띄우면서 양사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발단은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4' 기간에 불거진 세탁기 파손 논란이었다. 삼성전자는 LG전자 임직원이 베를린 양판점 '자툰 슈티글리츠'에서 자사의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파손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14일 LG전자 HA사업본부 조성진 사장을 비롯해 세탁기 담당 조모 임원, 신원불상 임직원 등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LG전자는 "해외 출장 시 경쟁사의 현지 제품과 사용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어느 업체든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라며 "당시 세탁기를 비롯해 타사 제품도 두루 살펴봤다. 그런데 다른 회사 세탁기들과 달리 유독 특정 회사 특정 모델은 힌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주장했다.

두 기업 사이의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5월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이 LG디스플레이로 이직하면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둘러싸고 양사가 지난해 9월까지 소송전을 치렀다. 같은해 8월에는 삼성전자가 자사와 LG전자의 냉장고 용량을 실험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양사는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다 법원의 중재로 1년만에 갈등을 마무리했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가 에어컨 시장점유율 1위라는 광고를 내보내면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번 논란 역시 두 기업 사이의 깊은 골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사장급의 경영진을 실명으로 수사 의뢰한 것은 처음이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가 논란에 대해 곧바로 사과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 같다"며 "LG전자는 통상적으로 있었던 관행에 삼성전자가 과민 반응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어 한동안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업체간에 서로의 입장을 얘기해봐야 아전투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경황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글로벌 가전 시장 1위라는 같은 목표를 두고 있는 두 기업이 올해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 강화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지나친 경쟁으로 스스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경쟁 관계를 넘어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양성운기자 ysw1404@metroseoul.co.kr

수출로 활로 모색하는 유망 내수기업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전문무역상사-유망내수기업 수출상담회에서 내수기업 관계자들이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과 함께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시행, 그동안 내수 시장에 의존하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제품 수출을 도울 계획이다. /연합뉴스

8월 수입물가 6개월째 하락

수입물가가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수출입 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 지수(2010년 100 기준)는 94.16으로 전월보다 0.8% 하락했다. 지난 3월 -0.5%, 4월 -2.5%, 5월 -1.7%, 6월 -0.1%, 7월 -0.5% 등에 이어 6개월째 하락세다.

특히 지난달 수입물가는 지난 2009년 10월의 93.28 이후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월보다 0.5% 상승했지만, 7월에 배럴당 106.13달러(두바이유 기준)이던 국제 유가가 8월에는 101.94달러로 3.9% 떨어지면서 수입물가가 하락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원유(-3.4%), 옥수수(-7.5%), 콩(-2.9%) 등의 하락폭이 컸다. 쇠고기(2.9%), 냉장어류(6.0%) 등은 올랐다.

지난달 원화 기준 수출물가는 환율 영향으로 전월보다 0.1% 올라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비스코스직물(6.6%), 메모리반도체인 DRAM(2.6%) 등의 오름폭이 큰 편이었다. /김현기기자

삼성, 대구에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朴대통령·이재용 부회장 참석

삼성그룹과 대구광역시가 글로벌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삼성이 그룹이 태동한 대구에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짓겠다는 취지다. 대구는 삼성의 이번 투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과 대구시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골자는 대구에 '아이디어-창업-성장-글로벌화'가 선순환하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삼성과 대구시가 인재양성, 자금 투자, 글로벌화 지원에 힘을 합친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삼성의 소프트웨어(SW)교육 지원프로그램을 지역 초·중·고와 대학 등에 확대 시행한다.

삼성·대구시·금융권은 공동으로 200억원 규모의 벤처창업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젊은이들의 창업을 돕는다.

삼성은 혁신센터 내에 크리에이티브 랩을 구축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테스트 인증, 첨단 정보기술(IT)기기 신모델 제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구시 북구 옛 제일모직 부지(연면적 4만1930㎡)에 스타트업 지원센터, 예술창작센터 등이 들어서는 대구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zen@

저금리 여파 극과극 행보

1%대 예금에 발길 끊긴 시중은행…저축은행은 3%대 상품 출시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은행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중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내린 반면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면서 다시 인기몰이에 나섰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1%대까지 하락하자 저축은행이 고금리 상품을 내세워 반사이익을 보는 셈이다.

실제 한은에 따르면 지난 7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는 전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한 2.49%로 집계됐다. 이는 199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저치다.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 금리 하락을 반영,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수신금리를 인하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5일 정기예금 금리를 0.05~0.15%포인트, 정기적금 금리는 0.20~0.25%포인트 내렸다.

앞서 국민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0.10~0.20%포인트, 기업은행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금리를 0.20~0.30%포인트 각각 인하했다. 일부 상품의 금리 인하 폭이 한은의 금리 인하폭인 0.25%보다 웃돈 셈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 1년간 예금을 맡기도 이자를 1%대 보장받기 힘들다.

기준금리 인하조치 후 다시 주목받는 곳은 저축은행이다.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 기반을 둔 참저축은행은 지난달 연 복리 이자율 3.3%(세전)의 특판 정기예금을 100억원 한정으로 판매했다. 이 상품은 출시된지 하루도 안돼 판매액 10억원을 돌파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초 500억원 한정으로 최대 연 3.2% 금리의 정기예금 상품을 내놓자 출시 사흘만에 판매가 끝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 전반적으로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특판 상품과 수익 다양화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신한카드-아모레퍼시픽, 고객 혜택 강화위한 MOU 유재천 아모레퍼시픽 Luxury 사업부문 부사장(왼쪽)과 신한카드 전략영업부문 이재정 부사장이 15일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 사업 지원 강화에 대한 전략적 제휴 조인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카드 제공

KB금융 이사회, 임 회장 자진사퇴 권고

금감원, 4명 검찰 고발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회장에 대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권고하기로 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15일 오전 서울시내 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KB금융의 조직 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융당국의 중징계에도 사퇴 거부 입장을 고수해온 임 회장은 이사회가 자진 사퇴 권고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입지가 더 좁아지게 됐다.

임 회장이 이사회의 자진사퇴 권고에도 사퇴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이사회 간담회가 다시 열리는 등 본격적인 해임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 사외이사는 "임 회장의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세가 이미 기울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KB조직과 구성원을 위해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사태가 수습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이뤄져 있다. 임 회장의 직무정지로 당분간 사외이사는 9명으로 가동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 사업과 관련해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 김재열 전무(CIO), 문윤호 IT부장, 조근철 국민은행 IT본부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

은행들 중소기업 대출 되레 줄였다

'하나은행' 가장 소극적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하라는 정부의 엄명에도 일부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되레 줄였다. 보신주의 타파의 핵심은 중소기업 대출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지난달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5268억원으로 7월의 6883억원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 감소폭은 24%에 달한다.

지난달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올해 1~8월 평균인 6233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 7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를 처음으로 제기하고, 이후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 등에서 수차례 이를 강조했다. 그러나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되레 줄었다.

특히 국민은행은 지난달 중소기업대출을 1013억원이나 축소했고 농협은행의 감소액도 659억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중소기업대출에 가장 소극적인 은행은 '하나은행'이다.

6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액은 올해 들어 8월까지 4조9860억원 증가했지만 하나은행의 대출액은 1043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월별로 보면 매달 130억원 증가한 셈이다. 국민은행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132억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대출 대신 은행들이 진력을 기울인 곳은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대출'이었다. 지난달 6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4조1565억원 급증했으며 자영업자대출도 1조3151억원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대출 모두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중소기업대출 대신 두 대출에 전념한 셈이다. 자영업자대출의 경우 올해 1~8월 월평균 증가액이 1조24억원에 달해 중소기업대출 증가액(6233억원)의 두 배에 가까웠다.

/[illegible] 기자

영업익 증가 기업 주가 큰폭 뛰어

상반기 263개사, 올 들어 42% 상승

상반기 실적이 표전된 12월 결산 법인 가운데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의 주가가 올 들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의 12월 결산법인 중 실적비교가 가능한 615개사의 주가 등락률(1월2일~9월5일)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상반기 영업이익이 증가한 263개사의 주가는 평균 41.97%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대비 순이익이 늘어난 277개사의 주가는 이 기간 평균 37.47% 올랐고 매출액 증가 335곳은 평균 34.44% 상승했다.

반면 상반기 실적이 악화된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년보다 매출액이 줄어든 280개사의 주가는 이 기간 평균 9.57% 오르는데 그쳤다.

영업익이 감소한 352개사의 주가는 이 기간 평균 9.03% 상승했고 순익이 줄어든 338개사는 평균 11.35% 올랐다.

영업익 증가 상위법인 가운데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한국화장품제조로 이 기간 245.98% 치솟았다.

이어 KEC(67.73%) F&F(64.31%) 팜스코(61.00%) 등 순이었다.

순익 증가 상위법인 중에서는 한솔케미칼타임월드가 118.36%로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고려산업(115.65%) 남선알미늄(92.43%) 영흥철강(39.46%) 등이 뒤따랐다.

매출액 증가율 상위 법인은 대상홀딩스(152.4%), 티웨이홀딩스(92.08%) 세아홀딩스(84.66%) 신한(83.12%) 등 순이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영업익이 주가를 좌우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풀이했다.

지지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소 상장법인이 많은 코스닥시장에서는 매출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반면 대형 기업 중심의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배당 등 주주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영업익과 순익에 더 무게가 실리는 편"이라며 "상반기 영업익이 증가한 법인 수가 매출이나 순이익 호전 법인보다 적었음에도 불구, 주가가 더 많이 오른 것은 시장이 영업익 증가를 더 높게 평가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

"증권사서 은행 계좌 개설 가능"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1월29일부터 금융사간 실명확인 위·수탁이 허용돼 증권사에서도 시중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상호간에 고객의 실명확인을 서로 맡길 수 없게 위·수탁이 허용된다.

예컨대 증권사에서도 실명확인의 위탁 등을 통해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실명확인업무와 관련한 위·수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금융사간 통장개설을 위한 실명확인 업무는 제한적으로 다뤄졌다.

실제 은행 등 타 금융사를 통해 개설 가능한 계좌는 수탁 금융사 계좌와의 연결금만 허용되는 연결계좌 정도였다.

기타 조문도 정비된다. 금융위는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인감증명서상 인감 외에도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를 추가해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했다.

또 금융위의 통계자료 작성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위가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 요청범위도 확대된다.

이밖에 과태료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명확해진다.

/백아란기자

신한생명, 6대질병 종신보험 출시

신한생명은 위험보장과 납입면제혜택을 강화한 '(무)신한유니버설6大건강종신보험'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판매 중인 '(무)신한3大건강종신보험'을 업그레이드한 이번 상품은 고액 치료비가 발생하는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말기간질환 등 3대질병을 추가 보장한다. 3대건강종신보험은 특정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만 보장했다.

해당질병으로 진단 확정되면 보험가입금액 100%를 건강진단보험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미진단 시 사망보험금 100%와 유족위로금 30%를 지급한다.

가입 후 2년(24회)까지는 매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지만 유니버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단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는 공제된다.

저축성 보험(적립형 계약) 또는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 납입횟수에 따라 장기납입보너스 혜택도 제공된다. 보험료는 30세 기준, 주계약 1억원, 20년 납입으로 가입 시 남자 27만3000원, 여자 21만7000원이다.

/김형석기자

"부동산 투자 해결책 제시" KDB대우증권은 금융 콘텐츠 채널인 '지니어이'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한 기념으로 오는 23일 오후 5시 여의도 본사 컨퍼런스홀에서 '지니아이 쏙쏙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KDB대우증권제공

한화손보 등 3사, 서울시와 MOU 체결

한화손해보험과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은 15일 서울특별시 신청사 간담회장에서 서울시와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간 5만 대 한정으로 추진된다.

이날 행사에는 박윤식 한화손해보험 대표와 김상성 MG손해보험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수봉 보험개발원장, 정용일 자동차 환경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지난해 대비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친환경 제도다.

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가 해당 업계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6개월 경과시 전년 대비 주행거리를 5% 이상 감축하면 감축률에 비례해 서울시에서 최대 3만5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친환경 전기자동차는 20%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후 승용차 마일리지제도를 전 손해보험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김형석기자 kha...

우리은행, '우리희망나눔센터' 개점

우리은행은 서민금융 전담 영업점인 '우리희망나눔센터 가든파이브점'을 개점했다고 15일 밝혔다.

가든파이브점은 교통이 편리하고 지명도가 높은 명동상담 바로 옆 서울 송파구청 신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5월 서민들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호점인 상계점을 선정한 바 있다.

우리희망나눔센터에서는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 서민전용 대출상품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우대하는 고금리 수신상품인 우리희망드림적금, 우리행복자립어통장 등 다양한 서민 특화상품들을 판매한다.

이동구 개인고객본부 부행장은 "사회공헌은 은행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비록 희망나눔센터가 수익을 창출하는 일반 점포의 전략과는 배치되지만 이를 통해 많은 서민들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외환銀 노조, 김한조 행장 등 고소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 추진으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을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15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사측이 진행 중인 대규모 직원 징계와 관련해 반발하며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고소장을 통해 "조합원 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 단체협약이 보장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 활동"이라며 "총회 방해 등 사측의 조합 활동 지배 개입과 조합원 징계 등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소 대상에는 외환은행 인사 담당 임원과 소속 직원들의 총회 참석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경인지역과 부산지역의 본부장 등 8명도 포함됐다.

/백아란기자

'권오갑號' 위기의 현대重 구할까

현대오일뱅크 시절 정유업계 유일 흑자 기록…주가 2.71% 상승 기대감

위기의 현대중공업이 15일자로 사장단 일부 인사를 단행하며 그룹 기획실장 겸 현대중공업 사장에 권오갑(63·사진) 현대오일뱅크 사장을 임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분기에 1조1037억원의 영업손실로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내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지난 3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파업을 위한 쟁의조정 신청을 해 19년 무분규 기록이 깨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25일까지 조정연장을 결정했다. 노사는 이에 따라 16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집중교섭을 하는 등 현대중공업은 1973년 회사 창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는 2008년 유럽을 중심으로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환율 하락, 중국산 저가 선박의 범람으로 가파른 수익률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돈을 펑펑 쓰던 유럽의 주요 선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돈 주머니가 마르자 선박 발주 가격을 후려쳤고, 국내외 조선사들은 실적 악화가 눈에 보였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출혈경쟁을 벌였다.

수주잔량 기준 세계 1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도 저가 수주에 뛰어들었다. 결국 2010년 15%에 달했던 현대중공업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3%로 뚝 떨어졌다. 올해 2분기에는 사상 최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3분기에도 영업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신임 권 사장은 1978년부터 2009년까지 30년 넘게 현대중공업에 몸담은 이후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에서 현대오일뱅크를 인수한 2010년부터 4년간 현대오일뱅크 사장을 맡아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현대오일뱅크는 매출로는 정유업계 막내(4위)지만 업계가 적자에 허덕이는 동안 올해 상반기 유일하게 1428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2011~2013년 영업이익률도 정유업계에서 가장 높았다.

권 사장은 "국내 조선사들이 그동안 해외에서 ⋯ 호황을 누리며 안주한 측면이 강하다"며 "조선사들끼리 저가 수주 경쟁을 펼치며 실적 악화를 불러왔고, 작업 현장에서도 회사의 생존보다 노조원들의 이익만 챙기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지적했다.

권 사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현대중공업 주가는 15일 장 시작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며 이날 전주보다 3000원(2.71%) 오른 14만1000원에 장을 마쳤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인사는 그룹사 경영을 쇄신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날 주가가 오른 것은 현대오일뱅크에서 기록한 실적을 현대중공업에서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오일뱅크 대표로는 문종박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 그동안 현대중공업 경영을 총괄해온 이재성 회장은 현직에서 물러났다. 조선·해양·플랜트사업을 총괄하는 김외현 대표는 유임됐다.

/김산환기자 nkim@metroseoul.co.kr

기업 72% "지원자 인성 평가"

성실성 가장 중요

구직자들은 기업들의 인성평가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15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1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인성 평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1.8%가 '포함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기업 중 70.4%는 지난해보다 인성 평가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을 평가하는 이유로는 '입사 후 근무태도를 엿볼 수 있어서'(48%,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사회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서'(44.8%), '지원자의 진실성 등 내면이 중요해서'(36%),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를 선별하기 위해서'(28.8%),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21.6%), '인성도 오랜 노력의 결과라서'(16.8%),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서'(16%) 등을 거론한 대답도 많았다.

인성 평가 방법으로는 '면접'(89.6%,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자기소개서 항목'(37.6%), '인·적성 검사'(12.8%) 등이 뒤를 이었다.

인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는 '성실성'(48.8%)이 1위를 차지했다. '대인관계성'(22.4%), '정직성'(12.8%), '정서적 안정성'(12.8%) 등이 있었다. /이국명기자

삼성전자 '커브드 사운드바' 출시 삼성전자는 커브드 TV에 어울리는 곡선형 오디오 '커브드 사운드바(모델 HW-H7501)'를 국내에 출시,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성 커브드 TV와 같은 곡률의 4200R을 적용했고 320W의 8.1채널을 지원한다. /삼성전자 제공

중장년 일자리 2000개 열린다

22일 코엑스서 채용

중장년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 채용의 장이 활짝 열린다.

취업포털 파인드잡은 전국경제인연합회·고용노동부와 함께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4 중장년 채용한마당'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장년 채용한마당'은 중장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협력사와 중소기업에는 우수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삼성·현대차·SK·LG·롯데·포스코·GS·한화·KT·두산·현대중공업·한진 등 12개 그룹의 120개 협력사와 200여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해 경력직 중장년 20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당일 현장에서는 토크콘서트 '공감잡담(Job談)'을 진행해 중장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는 취업연계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시니어 유망 자격증 활용전략, 창업, 귀농귀촌 전략 특강, 재취업 성공사례 등도 들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구직자에게는 '내게 맞는 기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맞춤 채용기업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컨설턴트가 사전에 취업을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병행해 적합한 기업 선택을 도와준다.

'2014 중장년 채용한마당' 홈페이지(jobfair.fki-rejob.or.kr)에서 원하는 기업에 사전 면접신청을 하면 해당기업에 대한 면접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최인녕 파인드잡 대표는 "시간선택제일자리 등 중장년 전문 채용서비스 개발에 앞장서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견·중소기업의 채용 수요에 맞는 우수인재 확보와 베이비부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kmlee@

전경련 16일부터 역사 강연

한국경제인연합회의 '자유와 창의교육원'은 1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우리 역사 바로보기_진짜 대한민국을 말하다' 강연회를 연다.

총 12회의 강좌에서 건국 과정과 이후 6·25,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르기까지의 '나라만들기' 역사에 대해 재조명한다.

16일 개강 특강에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의 도약과 역사와 철학'을 주제로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역사관 및 국가정체성 정립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한다.

뒤를 이어 이인호 KBS이사장, 이영훈 서울대 교수,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 등 석학들이 연사로 나선다. /박성훈기자 zen@

가을 동심 잡는 디즈니 캐릭터 게임들

카카오·라인 출시 봇물…이벤트도 풍성

가을 동심(童心)을 잡는 디즈니 게임 서비스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디즈니 캐릭터를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 '돌리돌리푸'(사진 왼쪽)와 '디즈니 썸썸' 등이 각각 카카오 게임하기와 라인을 통해 등장했다. 최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어린이 포털 키즈짱에 '디즈니관'을 신설했다. 이들 서비스는 상반기 히트작 '겨울왕국'의 인기를 이어 받아 가을에 대거 출시된 점이 특징이다. 가족 단위 나들이가 많아지는 가을은 어린이 콘텐츠 성수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양대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와 라인은 나란히 디즈니 게임을 선보였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모바일 퍼즐 게임 '돌리돌리푸'를 카카오 게임하기를 통해 출시했다. '돌리돌리푸'는 디즈니 인기 애니메이션 '곰돌이 푸'를 원작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귀여운 곰돌이 푸와 친구들이 등장해 생동감 넘치는 볼거리를 선사한다. 언뜻 단순한 어린이 게임으로 보이지만 이 게임은 카카오톡 게임 최초로 터치와 스핀을 조합한 4마청 룰을 도입했다. 이는 큐브 장난감처럼 도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전략적인 플레이를 구사할 수 있게 한다.

전세계 2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디즈니 썸썸'은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

라인은 캐주얼 퍼즐 게임 '라인 디즈니 썸썸'의 국내 서비스를 앞두고 17일까지 사전 예약 이벤트를 벌인다.

이 게임은 디즈니 캐릭터 인형 '썸'을 3개 이상 연결해 점수를 올리는 퍼즐 게임이다. 미키마우스부터 겨울왕국까지 디즈니 전 작품의 모든 인기 캐릭터가 총 출동하는 게임은 디즈니 썸썸이 유일하다. 디즈니 썸썸은 지난 1월 24일 일본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출시 6개월만에 전세계 2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다음은 어린이를 위한 디즈니 포털 '디즈니관'을 신설했다.

다음 키즈짱 PC 웹에서 디즈니관에 접속하면 200편 이상의 무료 동영상과 각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원화와 함께 제공하는 스토리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디즈니 캐릭터 게임뿐 아니라 색칠놀이와 만들기 놀이 교안 이용도 가능하다. 디즈니관을 방문할 때마다 캐릭터 스티커도 받을 수 있다.

백설공주와 인어공주 등 10명의 디즈니 대표 공주 캐릭터들이 모인 프린세스관도 눈길을 끈다. 다음은 공주 드레스를 증정하는 '디즈니 프린세스로 변신하자' 이벤트를 17일까지 진행한다.

다음 관계자는 "아이들이 차 안에서 지루해하거나 힘들어 할 때 디즈니 콘텐츠를 보여주란 취지에서 디즈니관을 휴일에 맞춰 오픈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아지는 계절적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스마트워치 3년 뒤에도 사용 가능할까

배터리와 폰 호환성이 성패 가를 듯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스마트워치'로 역산을 준비하고 있지만 배터리와 스마트폰과의 호환성이 숙부제로 부상하고 있다.

애플이 내년 초 '애플워치'를 앞세워 삼성전자의 기어S, LG전자의 G워치R, 모토로라의 모토360 등과 이른바 '손목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배터리 수명은 시장 선점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스마트워치 G워치R, 기어S, 애플워치.

첫 번째 문제는 배터리다. 스마트워치에 적용된 리튬폴리머 배터리의 충방전 수명은 500~1000회 정도다. 스마트워치를 하루 한번 충전할 경우 1000회 충방전 기준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나온다. 그러나 시계형으로 착용하고 통화를 많이 할 경우 배터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하루도 버티기 힘들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용자들의 충전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수명도 자연스럽게 단축될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 기어S의 배터리 용량은 300mAh, LG전자의 G워치R의 배터리 용량은 410mAh로 업그레이드 된 기능을 이용하면 1.5일 사용이 가능하다. 애플이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애플워치의 배터리 수명도 하루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는 SW(소프트웨어) 호환성 부분이다.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SW부분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었다. 때문에 최신 SW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과거 제품이 제외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제 초기 모델인 스마트 워치가 과연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호환유지를 이어갈지 여부도 관건이다.

특히 3년 뒤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간의 연동 기능은 더욱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구형기기에서 지원되지 않을 확률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마지막은 스마트워치는 IT기기라는 점이다. LG전자 제품은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다. IT기능보다 시계의 장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40만원에 육박하는 스마트워치를 구입하는 목적이 단순히 시계기능에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제조업체들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워치 혁신을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준기자 jj.a@

우뚝 솟은 제2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초고층 타워동 공사현장에 대한 시민자문단의 안전점검이 이뤄진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IT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 열린다

네이버, 16일부터 접수

IT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DEVIEW)'가 참가 등록을 시작한다.

네이버는 자사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개발자 컨퍼런스 'DEVIEW 2014'의 참가 등록을 16일부터 17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참가 등록은 2000명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각각 오후 2시와 오후 8시에 나뉘어 신청을 받는다.

컨퍼런스는 29일과 30일까지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지식을 나누고(Sharing) '탁월함을 추구하며(Excellence)' 함께 성장하는(Growth)" 이란 테마로 개최된다.

올해 7회째를 맞는 DEVIEW 2014는 국내 개발자를 비롯 글로벌 SW기업 엔지니어와 오픈소스 개발자들을 초대해 참여의 폭을 넓혔다. 또한 급변하는 IT 지형에 발 맞춰 사물인터넷과 하드웨어 등의 최신 기술 트렌드로 주제를 확대했다.

총 4개 트랙 50여 개의 세션으로 구성될 'DEVIEW 2014'는 29일에는 웹과 모바일 개발자 문화, 스타트업 세션, 30일에는 빅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언스·멀티코어 컴퓨팅과 선행 기술과 관련된 세션을 다룰 예정이다.

/김문희기자

양식장, 저수지 적조·녹조 걱정 끝!

엘비씨 규산염 수처리제 씨크린 출시

바다, 저수지, 낚시터 등이 매년 되풀이되는 적조 녹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엘비씨의 '씨크린'은 복합 수용성 규산염 성분으로 알카리도를 높여 적조 녹조를 방제하고 청정수역으로 유지시켜준다.

'씨크린'은 먹는물 관리법 제18조 제 2항 규정에 의한 성분을 사용해 안전하다. 산패 어은 관원성 물질을 사용해 지환력 증가, 살균 효과, 물 공기권 개선, 중금속 흡수 활산화 작용으로 면역력 증가, 유익 미생물의 균총 정상화 항 스트레스 작용으로 어류의 활력을 증가시켜준다.

특히 10리터면 약 1000평 정도의 오염된 수역을 정화할 수 있다. 문의 1588-3705

서초·강남·위례, 가을 분양시장 달군다

9·1부동산대책 대표 수혜지역으로 꼽혀 상한가
8개 단지서 4618가구 분양, 2083가구 일반분양 몫

정부의 잇단 부동산규제 완화로 주택 구매심리가 살아나면서 올 가을 분양시장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좌고 입지를 자랑하는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개발호재가 풍부한 강남보금자리, 총 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위례신도시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진검 승부를 펼칠 예정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대림·삼성·대우 등 재건축 3총사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가을 서초·강남·위례 등 강남권에서 총 8개 단지 4618가구가(일반분양 2083가구) 쏟아진다.

강남권은 7·24대책부터 9·1대책까지 부동산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LTV·DTI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진입 문턱이 낮아진 데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에 따라 웃돈도 껑충 뛴 상태다.

강남권에서도 선호도 높은 반포동과 서초동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3총사가 이달 분양을 준비 중이다.

가장 먼저 대림산업이 반포동 신반포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 2회차 물량으로 분양 포문을 연다. 지난해 12월 공급한 1회차 분양에서 평균 18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한 바 있다. 전체 1612가구 중 이번에 전용면적(이하 동일) 59~164㎡로 이뤄진 21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동간 거리가 59m에 달해 조망권과 일조권 확보가 가능하다.

삼성물산은 서초동 우성3차를 재건축해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를 공급한다. 총 421가구 중 83~139㎡ 49가구가 일반분양 몫이다. 우성1~2차와 함께 래미안 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단지 내 잔디광장과 산책로가 들어선다. 운동존과 문화존으로 구분한 커뮤니티시설도 계획됐다. 삼성타운을 비롯해 강남 중심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대우건설이 서초동 삼호1차를 재건축한 '서초 푸르지오 써밋'은 총 907가구 중 59~120㎡ 143가구를 일반에 선보인다. 서울지하철 9호선 신논현과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201동과 202동 사이에 스카이브릿지를 설치하고 1층 필로티 설계와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는 차별화된 특화 설계가 눈에 띈다.

◆강남보금자리, 첫 테라스하우스

강남보금자리지구는 복잡한 강남에 있으면서도 쾌적하고 무엇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인기다. 지난 달 중순 세곡2보금자리지구에서 공급된 '더샵 포레스트'는 1순위에서 평균 6대 1로 마감되기도 했다. KTX수서역세권, 동남권유통단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문정도시개발구역 등의 개발호재까지 갖췄다.

효성은 강남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B1블록에 테라스하우스로 구성된 '강남 효성해링턴 코트'를 9월 공급할 예정이다. 총 159가구 92~129㎡로 이뤄졌다. 강남권 최초의 테라스하우스 단지로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쾌적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피트니스센터, 골프퍼팅룸, 실내스크린골프, 게스트라운지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위례신도시, 역세권 단지 눈길

분양하는 단지마다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위례신도시에서는 GS건설 '위례자이'가 9월 분양된다. A2-3블록에 있으며 총 517가구 101~134㎡로 구성된다. 테라스하우스, 펜트하우스, 3면 개방형, 5베이 등 다양한 평면을 선보일 예정이다. 중심상업시설인 트랜짓몰과 접해있으며 2021년까지 신설계획인 경전철 위례중앙역(가칭)을 걸어서 다닐 수 있다.

대우건설은 C2-4·5·6블록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와 C2블록 '위례 C2 푸르지오(가칭)'을 11월 공급할 계획이다.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는 84㎡, 총 630가구 규모로 신설 예정인 서울지하철 8호선 우남역까지 도보거리다. '위례 C2 블록'은 138㎡ 216가구로 구성됐다. 수변공원과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박선옥기자 pso8820@metroseoul.co.kr

"아빠와 함께 조개잡아요" 대림산업이 해외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현장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아빠와 힐링캠프'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갯벌체험을 하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경기지역 전세 세입자, 재계약에 3000만원 필요

경기 주요지역 아파트 전세 재계약시 추가비용 (단위: 만원)

올 가을 경기지역에서 전세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 3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경기지역 아파트 186만7785가구의 평균 전세가는 1억8887만원이다. 2년 전 1억5846만원보다 3041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2년간 평균 전세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과천시로 2012년 2억5624만원에서 2014년 3억3039만원으로 7415만원이 올랐다. 원문동 래미안슈르, 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 등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거셌다.

재작년 이맘 3억원 선에 계약을 한 래미안슈르 전용면적(이하 동일) 59㎡는 올 7월 4억~4억30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전셋값이 뛰었다.

다음으로 성남시가 2억6058만원에서 3억2195만원으로 6137만원 상승했다. 분당신도시 대형 아파트와 판교신도시 새 아파트 위주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정자동 분당파크뷰 84㎡가 2012년 7월 4억5000만~4억8000만원에서 2014년 7월 5억4500만원으로, 판교동 판교원마을9단지 85㎡가 2억7000만~3억5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전세 시세가 상향조정됐다.

이어 의왕시가 5017만원(1억8329만→2억3346만원), 광명시가 4769만원(1억7724만→2억2493만원) 올랐다. 또 용인·화성·안양·부천·수원·고양시는 2년 새 평균 전세가가 3000만원 이상 상승했고, 구리·군포·하남시는 1억원대에서 2억원대로 진입했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몇 년간 이어진 전세난으로 물건 자체가 부족한 데다 서울에서 밀려오는 세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 경기지역 전셋값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선옥기자

국토부 "지금 나 부터…" 부정부패척결 실천 결의

국토교통부가 15일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 실천다짐행사를 가졌다.

이번 서약식에서는 전 직원이 함께 '부정부패 척결 결의문'을 채택하고 청렴생활 실천 다짐문을 제출하며 부정부패 척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국토부 직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금품·향응과 편의 청탁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부정부패 척결에 적극 동참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모범공무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서승환 장관을 비롯한 직원 모두는 각자의 청렴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다짐문을 작성해 '청렴다짐상자'에 넣으며 다시 한 번 부패척결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또 이 청렴다짐상자는 1년 뒤 다시 열어 각자 청렴생활 실천결과를 돌아보는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서 장관은 "이번 기회를 빌려 우리부 업무에 부정부패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돌아보고 부정부패를 유발할 만한 요인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일이 절대 없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박선옥기자

포스코건설, 1조2000억원 가스화력발전소 수주 포스코건설은 지난 나이지리아 민간발전회사 에보니PP와 인천 송도사옥에서 에보니PP 가스화력발전 공사에 대한 EPC 계약을 체결했다. /포스코건설 제공

프랜차이즈 업계 연구소 설치 경쟁

높아진 소비자 눈높이 맞추기 나서

국내 먹거리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 중에는 자체 연구소를 설치해 차별화된 메뉴를 선보이며 고객 확보에 나서는 업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브랜드 수는 3523개이며 가맹본부도 2830개에 이른다. 이 중 외식 기업이 1985개로 70.1%를 달했다. 결국 각 업체들은 일반적인 메뉴만으로는 높아진 소비자 수준을 따라갈 수 없게 됐다. 이에 까다로워진 소비자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 연구소를 설립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맛과 품질의 표준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커피전문점 '드롭탑'은 '커피전문점'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화하기 1년 전부터 R&D센터를 설립했다. 큐그레이더(Q-Grader)가 직접 원두를 엄격하게 선별하고 이렇게 엄선된 원두를 가지고 블렌딩 마스터가 맛과 향을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배합비를 찾아내 전체적인 풍미와 균형감에 중점을 둔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일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 출신의 베이커리 푸드 담당자와 해외 바리스타 경력까지 갖춘 전문가를 고루 배치해 지속적인 메뉴 개발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기관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기도 했다.

'스타벅스 커피코리아'의 자체 개발팀은 글로벌 본사와 별도로 국내 소비자의 기호와 특성에 맞는 음료를 비롯해 전통 문화를 반영한 제품·매장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제품 국산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친환경 경기미를 이용한 가공 제품을 비롯해 스타벅스 전용 두유, 프라푸치노 음료 등 원 부자재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산 과일로 만든 주스 개발과 유기농 재배 과정을 거친 제주산 녹차를 사용한 음료를 선보이기도 했다.

한촌설렁탕 식품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제품의 성분등을 검사하고 있다. /한촌설렁탕 제공

치킨브랜드 'bhc'는 최근 후라이드 치킨 전용 파우더인 '바삭믹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이를 사용한 후라이드 치킨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bhc 자체 조직인 R&D연구소 인력이 모두 투입돼 1년 여간 연구 끝에 개발됐다. 개발기간 약 1000여 마리의 닭과 약 20여 톤의 원료가 사용됐다. 특히 최적의 바삭함을 전달하기 위해 원료 하나하나의 특성을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수백번의 배합테스트를 거쳐 가장 적합한 특수재료 개발과 최적의 배합비율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제품의 완벽함을 위해 약 20%에 달하는 가맹점주가 참여한 가운데 일주일간 테스트를 거치기도 했다.

제너시스 BBQ그룹은 R&D연구소 개념의 '세계식문화과학기술원'을 보유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인 석박사 30여명이 세계의 식문화와 식품과학, 기술을 융복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세계의 음식문화를 현지화하고 브랜드 메뉴를 제안, 제품에 맞는 주방장비까지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패밀리의 품질 균일화를 위해 제품의 품질점검은 물론 패밀리 QCS 점검을 하는 품질혁신팀, 직접 제품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개발팀, 그리고 전체적인 연구소의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원들이 개발에 매진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전략기획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촌설렁탕'은 지난 2010년에 국내 최초로 설렁탕만을 연구하는 식품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7명으로 구성된 이 기술연구소는 식품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맛과 품질의 메커니즘을 완성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 검수 프로세스를 도입해 CK공장에 입고되는 원재료를 투입 전에 확인해 원료 품질을 표준화 했으며 공정 중간에 실시간으로 품질을 분석해 제품의 안정화를 추진했다.

/기자 @metroseoul.co.kr

온라인몰, 명절 직후 매출 급증

명절 때 발생하는 여러가지 노동과 관련된 심리적 부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들을 총칭하는 '명절 증후군'이 온라인 마켓들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올해 첫 시행된 '대체 휴일'도 매출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가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티몬'은 15일, 이번 추석 연휴기간 매출은 평소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대체휴일이 첫 시행된 10일에 평소 매출로 복귀한 데 이어 연휴 직후인 11일에는 전주보다 60%나 매출이 상승하며 명절 특수를 누렸다고 밝혔다.

업계 측은 대체 휴일 덕분에 여유롭게 귀경해 쇼핑을 즐긴 고객이 많았던 것과 함께 20~40대 여성이 고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셜커머스의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화장품·의류·육아용품 등 여성 선호 상품 인기

또 명절직후 명절기간 동안 떨어졌던 매출의 회복속도가 매년 빨라지고 있는 동기에 대해선 '명절 증후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

명절 내내 가사노동 등에 시달린 여성들이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명 '명절 후 분노의 쇼핑'이 연휴 내 떨어져있던 온라인 쇼핑 매출을 급속히 회복시켰다는 것이다. 여기에 명절기간 수고한 부인을 위한 남편들의 위로 선물 증가도 한몫을 했다.

실제로 이 업계의 2012년 추석에는 연휴 다음날 매출은 전주의 70% 선까지 회복됐다. 그러나 올해 설날에는 연휴 다음날 매출이 명절 전주보다 오히려 30%, 추석에는 그 수치가 60%까지 늘면서 명절 직전보다 직후가 대목으로 꼽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매출을 주도한 제품은 보습크림·비비크림 등의 화장품과 셔츠·가디건·가을신상 라인업 등의 여성의류들로 이를 방증하고 있다. /기자

롯데리아 35주년 '원조빅불버거' 출시

기존 불고기버거에 패티와 치즈 추가 진한 맛

롯데리아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원조빅불버거'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1992년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된 롯데리아 불고기버거를 리뉴얼했다. 롯데리아 불고기버거는 출시 이후 11 은 외국 브랜드를 비롯해 햄버거 외식 시장에서 현재까지도 유사 제품을 선보인 정도의 히트 제품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롯데리아는 한국인 입맛에 맞춘 최초의 불고기버거라는 정통성과 타사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 정착을 위해 활용한 원조 제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존 불고기버거의 중량을 늘려 한층 업그레이드 된 원조빅불버거를 출시했다는 것이다.

원조빅불버거는 기존 불고기버거에 쇠고기 패티와 치즈를 추가해 쇠고기 본연의 맛을 구현했다. 원조빅불버거 단품은 4800원이며 세트는 6600원이다. 원조빅불버거와 새우버거·양념감자·콜라 2잔이 포함된 '빅불팩'은 1만원에 판매된다.

롯데리아는 이번 원조빅불버거 출시와 함께 15일부터 1개월까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단품 가격에 세트를 즐길 수 있는 쿠폰 이벤트(사용기간 9월 15일~30일)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원조빅불버거 단품 1개 구매 시 추가로 하나를 더 증정하는 1+1쿠폰(사용기간 9월 16일~10월 5일)을 16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 /기자

해외 온라인 창업희망자 "선호 채널은 '이베이'"

희망지역은 '미국' 꼽아

해외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이 현지에서 가장 활용하고 싶은 온라인 유통망으로 이베이를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창업 프랜차이즈 기업 '테라노바코리아'가 최근 예비창업인 9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해외 창업하기 적합한 채널' 1위로 이베이(37%)가 선정됐다. 이어 아마존(23%)과 타오바오(12%), 라쿠텐(6%), 큐텐(1%) 등이 뒤를 이었다.

'손익분기 도달 예상 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6개월~1년(54%)'이 가장 많았으며 '1~3년(36%)', '6개월 이내(7%)', '3~5년(3%)' 순이었다.

창업을 희망하는 관심 품목으로는 디지털가전(24%), 패션(14%) 순이었지만 '아이템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답도 27%나 됐다.

예비 창업인들이 해외창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설정한 금액은 '1000~3000만원(34%)'이 가장 많았다. '3000~5000만원(21%)', '1000만원 이하(18%)', '5000만원~1억원(16%)', '1억원~3억원(10%)' 등이 2~5위를 기록했다.

'해외창업에서 타깃으로 정한 나라 혹은 지역'은 미국(30%)이 가장 많았다. 이어 동남아(17%)와 서유럽(12%) 등이 상위권에 올랐지만 '기타 혹은 미정'이라고 답한 사람도 21%에 달했다. '결정한 사업 아이템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없다(73%)'고 답한 사람이 '있다(27%)'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기자

공짜로 피부 미인 돼볼까

뷰티업계 '체험단' 모집… 체험 키트 증정

뷰티업계가 가을 신제품을 선보이고 무료 체험단과 서포터즈를 잇따라 선발한다.

고운세상 코스메틱 닥터지는 신제품 레드-블레미쉬 클리어 크림 30㎖ 출시를 기념해 '레드 블레미쉬 1만명 체험단'을 모집한다.

다음 달 5일까지 닥터지 공식 온라인 쇼핑몰 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체험단을 신청한 선착순 1만명에게는 닥터지 레드-블레미쉬 수딩 엠플과 닥터지 레드-블레미쉬 클리어 크림 2종으로 구성된 7일 체험 키트를 제공한다. 또한 체험 후 쇼핑몰에 사용 후기를 남긴 사람에게 레드-블레미쉬 정품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닥터지 레드-블레미쉬 라인은 붉고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울긋불긋한 트러블 흔적 개선에 도움을 주는 스킨케어 라인이다.

CNP 차앤박화장품은 SNS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브랜드 홍보 활동을 펼칠 'SNS 트루 서포터즈' 9기를 선발한다.

서포터즈는 나이 제한 없이 CNP차앤박 화장품을 사랑하고 뷰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21일까지 CNP 차앤박 화장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된 20명은 10월 1일 오프라인 발대식을 시작으로 총 3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펼친다.

서포터즈는 신제품 체험은 물론 SNS 채널 대상의 정기미션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자랑할 수 있는 스팟 형식의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CNP 차앤박화장품은 서포터즈에게 매월 베스트 제품을 제공하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매달 특별한 혜택을 선사한다.

/이지은기자

가볍고 부드러워진 '秋男'

올 가을 남성복 트렌드

올 가을 남성복이 가볍고 부드러워졌다.

2014년 가을·겨울 시즌에는 봄-여름에 유행했던 캐주얼 트렌드를 이어받아 포멀과 캐주얼의 혼재가 지속될 전망이다. 수트의 경우 각이 잡힌 어깨에 힘이 빠지고 청바지·면바지 등 캐주얼 의상과 함께 믹스매치할 수 있는 디자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제일모직의 갤럭시는 수트와 재킷을 겸용으로 입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아이템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라이크라·네오프렌·스트레치 등의 소재를 활용해 활동성을 높였다. 더불어 슬림하면서도 편안한 실루엣을 강조하기 위해 가볍고 볼륨감 있는 알파카 혼방 소재의 수트·재킷도 내놨다.

빨질레리에서는 따뜻해 보이지만 착용감은 가벼운 수트·재킷이 눈길을 끈다. 특히 기존 남성복에서 보이던 각 잡힌 라인을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어깨가 포인트다. 어깨 패드와 심지를 얇게 가시가면서 가벼운 부자재를 활용해 흐르는 듯한 실루엣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어깨 패드의 경우는 3~4개까지 다양하게 적용하는데 반해 올해는 1개 정도만 사용해 형태는 잡아주고 어깨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

로가디스 컬렉션 역시 부드럽고 가벼운 캐멀헤어 소재를 사용한 수트·재킷으로 남심을 유혹하고 있다.

빨질레리의 이지영 디자인 실장은 "이번 시즌의 키워드는 소프트"라며 "부드럽지만 차별화된 외관과 가볍고 편안함을 주는 남성복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시즌 남성복에서는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저지 원단과 저지 라이크 소재의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빨질레리의 '레카도 재킷'은 저지 원단과 저지 라이크 소재를 활용해 외관상으로는 울 소재의 상품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스트레치 기능이 있어서 장시간 입어도 착용감이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이지은기자 pj@metroseoul.co.kr

'63빌딩과 함께 금메달!' 이벤트

63스퀘어, 인천 아시안게임 승리 기원 행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63스퀘어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개막을 앞두고 '63빌딩과 함께 금메달!' 이벤트를 선보인다.

먼저 공식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서는 17일과 24일 '63 아시안게임 퀴즈' 행사를 실시한다. 63스퀘어는 댓글로 정답을 맞추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63 BIG3 패키지를 증정할 예정이다.

또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댓글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면 추첨을 통해 아쿠아플라넷 물범 인형을 선물로 준다.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63 BIG3 4 패키지가 30% 할인된다.

/황재용기자 hsj@

친환경 워커 신고 숲 살려요 15일 서울 중구 랜드로바 명동점에서 모델들이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워커를 선보이고 있다. 금강제화는 '랜드로바 친환경 워커' 판매 수익금 일부를 서울의 숲 조성을 위한 묘목 구입에 사용할 예정이다. /금강제화 제공

JAL, 국제선 노선·편수 일부 변경

네트워크 확충 등 서비스 품질 향상 박차

JAL그룹은 2014년도 국제선 노선 편수를 일부 변경했다. 츄부(나고야)~방콕 노선, 간사이~로스앤젤레스 노선을 개설하고 스카이스위트 기재의 투입 노선을 확대했다. 여행객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재와 편수를 변경한 것이다.

JAL그룹은 고객의 편의향상을 목표로 ▲향후 네트워크의 확충 ▲상품·서비스 품질의 향상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정돼 있던 수도권 이외 국제선 네트워크 확대시기를 앞당겨 12월부터 츄부~방콕 노선, 내년 3월부터 간사이~로스앤젤레스 노선을 개설한다.

특히 츄부 국제공항은 약 10년, 간사이 국제 공항은 약 6년 만의 개설이다. 두 개 노선 모두 일본계 항공사에서는 유일한 직항 편으로 츄부·간사이 지역의 경제 발전과 고객의 편의 향상에 적극 공헌할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ksj@

그날 기분 따라 다른 '향'을 입다

향기 레이어링 노하우

가을이면 우울감이나 허전한 기분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럴 땐 손쉽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향수 브랜드 아닉구딸 관계자는 "다양한 향기 제품을 섞어 사용하면 자신 만의 개성 있는 '향'을 만들 수 있다"며 향기 레이어링 노하우를 귀띔했다.

마음에 드는 상대나 주변 사람들에게 관능적이고 세련된 매력을 어필하고 싶을 때는 화이트 플로랄 계열의 샤워젤과 바디크림을 사용한 후 동일한 계열의 향수를 뿌린다. 향기가 오래 지속되면서 각각의 독특한 향이 어우러져 보다 깊이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화이트 플로랄 노트의 가볍지 않은 느낌과 여성적이고 관능적인 향취는 섬세하고 은은한 매력을 주기에 충분하다.

◆무거운 기분을 상큼하게 전환하고 싶을 때

우중충한 날씨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한 날에는 싱그런 향기로 기분을 전환해보는 게 좋다.

시트러스 스파이시 계열 바디크림을 바른 후 같은 계열의 향수를 뿌리면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사용한 시트러스 계열의 향수에 스파이시 노트가 더해지면 보다 상쾌한 느낌을 준다고 향수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지원기자

"외식, 집에서 즐기세요"

업체들 '반조리 식품' 출시 잇따라

최근 외식업체들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메뉴를 가정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반조리 상태로 상품화하는 등 매출 증가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외식을 즐길 수 있고, 외식업계 입장에서는 유통 사업으로 매출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먼저 캠핑 콘셉트의 고깃집 프랜차이즈 '구이앤캠프'(큰 사진)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막창(소·돼지)을 초벌 구이 된 반조리 상태로 제품화했다.

집 또는 캠핑장에서 숯불에 손쉽고 편하게 구워 먹을 수 있도록 300g, 500g 두 가지로 인원 수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300g은 430g의 원육, 500g은 714g의 원육을 각각 초벌 구이 한 양이다. 스팀 엘지리 공법으로 간편하고 빠른 구이가 가능하다. 화학 연육제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 천연 키위로 48시간 저온 숙성해 육질의 부드러움은 살리고 잡냄새를 잡았다.

한식 브랜드 '하누소'도 매장에서 인기 있는 식사메뉴인 왕 갈비탕, 우거지 갈비탕, 한우 육개장, 보양 도가니탕, 염 갈비찜, 왕 갈비찜 등을 본사 식품센터에서 완조리한 상태로 납품한다. 본사의 식품센터와

물류공장을 별도로 갖추어 어느 가맹점에서나 동일한 방식과 맛을 느낄 수 있다.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탐앤탐스'는 다양한 자체 PB상품을 매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해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TYO 요거트 파우더(이하 티요)'(작은 사진)는 정통 요거트의 농후한 맛을 살린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와 똑같은 맛을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제품은 우유와 믹서에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 간식 재료가 된다. 또 가정에서 티요를 응용GO 과일을 첨가하거나 아이스크림·스무디 등 여러 종류의 메뉴로 직접 만드는 재미가 있는 실속 DIY제품이다.

/정영일기자

메탈 소재 생활가전 인기

젊은층 중심으로 구매 늘어나

최근 메탈가전에 대한 선호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색 가전 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스타일을 중시하는 젊은 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온라인종합 쇼핑몰 롯데닷컴에 따르면 삼성 지펠 냉장고의 판매율은 지난 8월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최근 한달간, 전년 동기대비 20% 가량 늘었다. 메탈 소재 특유의 심플함과 모던함을 살린 웰빙 쥬서기 'Breville 시트러스 프레스 800CP'도 같은 기간 직년 같은 달보다 판매율이 25% 상승했다. 밥솥 역시 클스텐 메탈 소재의 고급스러움을 살린 '쿠쿠 IH압력밥솥 10인용' 상품이 출시되는 등 가전 시장에서 메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같은 메탈가전 수요를 반영해 롯데닷컴은 오는 25일까지 '가을맞이 혼수 이사 가전 준비 대작전'을 진행한다.

MD추천 상품으로는 세련된 디자인에 에너지 효율까지 갖춘 '삼성 지펠 양문형 냉장고'(사진), 메탈릭 컬러로 주방에 고급스러움과 깔끔함을 더해주는 '동양매직 무연 우수 그릴 프리미엄 인덕션 가스오븐레인지', 영상에 최적화된 밝기 조절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LG전자 Full HD LED TV'가 있다. 블랙 헤어라인과 메탈릭의 조화로 세련된 디자인에 분리형 커버로 위생까지 생각한 '쿠쿠 IH압력밥솥 10인용', 완벽한 밀폐시스템으로 미세먼지에도 걱정 없는 '일렉트로룩스 울트라플렉스 청소기' 등도 추천상품이다.

롯데닷컴 가전팀 정혜숙 MD는 "요즘 가장 트렌디한 메탈가전은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질리지 않는 장점이 있어 어떤 콘셉트의 리빙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린다"며 "무엇보다 기획전 내 전체 상품 중 메탈가전의 비율은 30%로 작년보다 10% 이상 확대 돼 발품을 팔지 않아도 최신 트렌드의 제품을 한 눈에 보며 효율적인 쇼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강강술래, '내생애 봄날' 제작지원

제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MBC 새 수목 드라마 '내 생애 봄날'을 제작지원한다.

회사 측은 따뜻한 드라마 내용과 가족 손님이 많이 찾는 강강술래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돼 제작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첫 공중파 드라마 제작지원을 통해 좀 더 많은 고객들에게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드라마가 종영되는 10월 말까지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ullani)에 시청소감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흑이자한돈너비아니(2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외에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이 떨어진 고객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할인 행사도 벌인다.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며 면역력 증진과 기력 보충에 좋은 곰탕 대용량박스(500㎖·4팩·18인분)는 3만4400원, 소용량박스(350㎖·10팩·20인분)는 3만7300원에 40% 할인 판매한다.

100% 국내산 5At 등심 부위를 통째로 사용한 통등심돈가스(3박스·2.16㎏·2만7000원)와 100% 자연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3박스·2.16㎏·3만2400원)도 4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한편 '내 생애 봄날'은 장기이식을 통해 새 심장을 얻은 여주인공(수영)이 심장을 기증한 여인의 남편(감우성)과 아이들을 만나며 사랑을 이어가는 작고 따뜻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김수정기자

옥션, 9900원에 공연 티켓

옥션이 매주 문화 공연 1편을 특가에 판매하는 '옥션티켓99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상품은 옥션티켓에서 매주 월요일 10시에 공개되며 그 주 금요일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15일 첫 번째 딜 작품 '더 데빌'은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오는 11월 2일까지 공연한다. 99딜로 구매할 수 있는 티켓은 23일~28일까지의 공연으로 정가 5만원 상당 S석 티켓을 19일까지 9900원에 판매한다. 옥션티켓99딜 할인쿠폰 다운 후 공연 예매창에서 할인권을 적용한 뒤 예매할 수 있다.

/김수정기자

"느끼한 추석 음식 질렸다면…"

새콤·담백한 메뉴로 입맛 살리세요

추석 연휴 기름진 음식으로 뱃속까지 느끼한 지금은 담백하고 새콤한 맛이 입맛을 당기게 한다.

한식 브랜드 '스쿨푸드'에서 판매하는 '신비국수'는 '신김치 비빔국수'의 줄임말인 메뉴명 그대로 신김치 열무김치와 함께 스쿨푸드의 특제 소스로 맛을 낸 비빔국수다.

쫄깃한 면발과 특유의 담백하면서 매콤한 양념으로 추석 음식의 느끼함을 말끔하게 지워준다.

담백한 맛과 고소한 맛을 원한다면 맛집으로 유명한 '메이프릴 마켓'의 '시금치 플랫 브레드'를 추천한다.

'시금치 플랫 브레드'는 구운 플랫 브레드 위에 시금치를 토핑으로 얹었다. 시금치를 들에 데쳐 먹는 한국인들에게 생 시금치는 낯설 수 있지만 서양인들이 생 바질을 먹는 것과 비슷한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베트남 요리 전문점 '포아인'은 배를 든든하게 하는 밥이면서도 새콤한 메뉴가 있다. 새콤달콤한 파인애플의 맛과 향이 더해져 상큼하게 입맛을 살려주는 베트남 전통 볶음밥인 '파인애플 볶음밥'(사진)이다. 파인애플의 상큼한 과육이 그대로 씹히는 점이 특징이다.

/정영일기자

무궁무진한 반전 매력

깊은 감정 연기 위해 영화 선택
속마음 알 수 없는 캐릭터에 매료
팔색조 매력 발산 "연기 전환점 되길"

이하늬에게는 '섹시' 매력이 있다 대중들은 섹시한 이미지로 그를 기억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능 프로그램 '사남일녀'에서 보여준 소탈한 모습이 있다 모처럼만에 스크린에 돌아온 이하늬는 '타짜-신의 손'에서 자신만의 반전 매력을 마음껏 펼쳐보였다 이번 영화가 배우로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이유다

지난 3일 개봉한 '타짜-신의 손'은 각양각색의 캐릭터들이 147분의 러닝타임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는 영화다 그중에서도 '우사장'으로 불리는 우지현은 전형적인 '팜므파탈' 같으면서도 의외의 모습으로 영화에 반전을 선사하는 핵심 인물이다

그 동안 영화·드라마·뮤지컬·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약해온 이하늬는 연기 경험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보다 더 깊은 감정을 연기하고 싶은 욕심을 갖게 됐다 자연스럽게 영화로 관심을 돌린 그에게 '타짜-신의 손'의 우지현은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캐릭터였다

이하늬는 "예소의 내가 털을 날리는 산삼캐라면 영화 속 우지현은 느릿느릿 걷는 고양이 같은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빨간 재킷과 킬 힐을 신은 강렬한 등장 그러면서도 저 낮은 목소리로 애교를 떠는 우지현은 진짜 모습을 좀처럼 알 수 없는 캐릭터다 속마음을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이 곧 우지현의 가장 큰 매력이었다

"우지현은 극과 극을 달리는 여자예요. 한지 알을 알 수 없는 여자죠. 조와 울, 양과 음으로 나눈다면 조와 양이 영화 초반부에, 울과 음은 영화 후반부에 담으려고 했어요. 변화가 많아서 스트레스도 많았어요. 우지현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는 후반부는 정말 힘들었고요."

이하늬는 우지현 역을 통해 청순함과 요염함, 그리고 사랑과 욕망에 대한 무서운 집착까지 다채로운 모습을 보였다 등장 신마다 예상 밖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 어떻게든 우지현을 이해하려고 고민했다 그런 고민 끝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순수함이었다

"우지현은 그 동안 남자들을 [illegible] 무수히 밟혔을 거예요 그만큼 상처도 많았겠죠 저는 우지현이 악녀라기보다 그저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악행이지만 스스로에게는 정당한 행동이죠. 그런 순수함을 놓치지 않고 싶었어요."

우지현의 순수함은 주인공 대길(최승현)을 향한 마음에서도 잘 드러난다 많은 남자들을 만나며 상처를 받았을 우지현은 대길을 만나 한 순간 행복을 꿈꾼다 대길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대길의 사랑을 확인하고픈 모습에는 우지현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대길의 첫사랑 미나의 등장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나머지 우지현의 사랑은 집착이 되고 결국에는 욕망의 늪이 된다 우지현이 맞이하는 결말은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슬프다 영화 속 우지현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이하늬는 "가혹하다"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그 표정에서 캐릭터에 대한 깊은 애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늬는 처음부터 배우가 될 생각이 없었다 다만 어릴적부터 배운 국악만으로는 타고난 에너지를 해소할 수 없었다 연기를 통해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그는 배우로서의 즐거움을 조금씩 느껴왔다

미스코리아 진이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스타를 향해 큰 걸음을 걸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하늬는 스타보다 배우가 되기 위한 작은 걸음으로 묵묵히 연기의 길을 걸어왔다 여배우로서의 삶을 마주하며 극심한 슬럼프를 겪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보다 여유로운 태도로 배우로서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배우로서 천천히 가더라도 단단하게 가고 싶어요 너무 빨리 가려고 서두르다면 놓치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요 다만 원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사남일녀'를 제 대표작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속상하기도 해요(웃음) '타짜-신의 손'의 우지현이 제게는 전환점이 될 거라 믿어요."

/장경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illegible] 디자인/[illegible]

'타짜-신의 손'으로 돌아온 이하늬

"화려한 연예인 편견 깨줄 드라마"

SBS 새 수목드라마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의 정지훈, 정수정 /SBS 제공

정지훈 복귀·크리스탈 첫 주연 '내겐 ', 가요계 '온에어' 될까

가수 겸 배우 정지훈이 SBS 새 수목극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를 가요계의 '온에어'라고 소개했다. SBS 드라마 '온에어'(2008)는 방송계 뒷이야기와 배우들 간 다툼·사랑을 다룬 작품이다. '내겐 '은 연예기획사 AnA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사랑과 갈등, 성장을 그리고 있다.

15일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정지훈은 "작가가 음반 업계를 잘 아는 것 같다"며 "실제 12년 동안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고스란히 작품에 녹여낸다. 화려하다고만 생각됐던 연예인에 대한 편견을 깨줄 드라마"라고 말했다.

이어 "신인을 어떻게 키우는지, 가수들이 어떻게 활동하는 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온에어'가 배우 이야기였다면 '내겐 '은 가수 이야기다. 연예인 지망생들이 보면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고 덧붙였다.

'내겐 '으로 4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한 정지훈은 작품에서 이현욱 역을 맡았다. 사람 때문에 생긴 깊은 상처를 치유 받는 연공이다. 연예기획사의 대표이자 작곡가, 프로듀서인 그는 세상에 무관심한 듯 하면서도 속 깊은 남자의 감성을 지니고 있다.

작품을 통해 처음 주연을 맡은 그룹 에프엑스의 정수정도 "대본을 읽으면서 대중에게 보여지는 연예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뒷이야기가 많이 나와 좋았다"고 정지훈의 말에 공감했다.

정수정이 맡은 윤세나 역은 세상을 떠난 언니를 대신해 음악으로 꿈을 이뤄보겠다며 상경한 음악 천재다.

기획사 총괄 이사 신혜윤 역으로 처음 연기에 도전하는 차예련은 "소속 가수들 사이의 갈등과 작곡가와의 갈등이 자세하게 녹아있다"며 "작가가 내가 매니저와 대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쓴 거 같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최고 인기 아이돌 그룹인 무한동력의 멤버 시우 역을 맡은 그룹 인피니트의 엘 김명수는 "드라마에서도 가수로 나오는 데 공감 간 부분은 무대 뒤 외로움이었다"고 말했다.

정지훈은 "내가 느끼는 게 시청자에게 전해진다면 성공할 것"이라며 "촬영장에 오기 전 나로 인해 상대 연기자들이 편하고 재미있게 촬영됐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한다. 시청자들도 '내겐 '을 보면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관전 포인트를 설명했다. 작품은 오는 17일 첫 방송.

/전효진 기자 jacnh@metroseoul.co.kr

비스트 4개월 만에 돌아온다

내달 데뷔 5주년 맞아 활동 재개

그룹 비스트가 데뷔 5주년을 맞아 다시 컴백으로 돌아온다.

비스트는 다음달 16일 새앨범을 발표한다. 6월 '굿 럭'으로 활동한 지 4개월 만의 초고속 컴백이다. 멤버 손동운은 14일 자신의 SNS에 '10월 16일'이 적힌 이미지를 공개해 팬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비스트는 8월 열린 킨텍스에서 진행된 단독콘서트 '2014 뷰티풀쇼'를 통해 올 가을 컴백 계획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6월 '굿 럭'을 발표한 데 이어 연중 2번 컴백에 팬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비스트는 데뷔 5주년을 맞는 10월 16일을 컴백 날짜로 확정해 팬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팬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내외를 오가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며 새 음반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년여의 공백을 깨고 미니 6집 '굿 럭'을 발표한 비스트는 당시 각종 음악방송의 1위를 휩쓸며 11개의 트로피를 쓸어담았다. 이기광이 온스타일 패션 프로그램 '스타일로그 2014' MC로 발탁됐고, 양요섭이 뮤지컬 '조로'의 주연으로 13일 공연에 들어가는 등 멤버들은 개인 활동으로 분주하다.

/황숙희 기자 suns@

하정우 12년 의리 '쭉~'

소속사 판타지오와 재계약

배우 하정우(사진)가 현 소속사 판타지오와 재계약 했다. 데뷔 초부터 함께 해온 소속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12년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판타지오 측은 "하정우와는 배우와 매니지먼트사의 관계를 넘어 상호 발전적인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있다"며 "그 바탕에는 오랜 시간 함께 한 신뢰, 열정이 전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계약도 계약 기간 연장이 아닌 미래를 공동 설계하는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해 말 판타지오에 구두로 재계약 의사를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우는 현재 영화 '롤러코스터'에 이은 두 번째 연출작인 영화 '허삼관 매혈기' 감독과 주연을 겸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이달 말 '허삼관 매혈기' 작업을 끝낸 후 전지현과 호흡을 맞추는 영화 '암살' 촬영에 들어간다.

한편 판타지오는 60여 명의 소속 연예인을 보유한 매니지먼트사며 코스닥 상장사 에듀컴퍼니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이전 수순을 밟고 있어 키이스트, IHQ와 함께 엔터주 신 3인방으로 언급되고 있다.

/전효진 기자 jacnh@

엑소 태국 공연 2만2000팬 운집

기자회견장 일대 마비…베이징으로 열기 이어가

엑소의 인기는 태국에서도 통했다.

데뷔 이후 첫 단독 콘서트 투어 '엑소 프롬 엑소플래닛 #1 더 로스트 플래닛'을 진행 중인 엑소는 지난 13~14일 태국 방콕 임팩트 아레나에서 공연을 했다.

이번 방콕 콘서트는 지난 2012년 프로모션 차 방콕을 방문한 이후 2년 만에 태국 팬을 만나는 자리로 2회 공연에 총 2만2000석이 매진돼 태국 내 엑소의 인기를 입증했다.

공연에 앞서 엑소는 12일 저녁 방콕 중심가 시암 파크 파라곤 야외무대에서 콘서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장엔 현지 취재진을 비롯해 엑소를 보기 위해 몰린 수천 명의 팬으로 인근 상가가 마비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진행자는 "엑소 때문에 일대가 마비됐다"며 "기자회견 전날부터 기다리는 팬들도 많았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번 공연에서 엑소는 히트곡을 포함한 앨범 수록곡, 멤버들의 솔로 무대까지 2시간 동안 총 30곡을 선보였다. 13일 공연엔 태국의 국민 MC로 불리는 써라윳도 현장을 찾아 현지 팬과 취재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연 내내 이어진 팬들의 환호에 엑소는 "태국 관객 여러분의 열정과 환호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며 "행복하고 감동적이었다. 방콕 공연을 잊지 못할 것이다. 태국 팬을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엑소는 오는 20~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투어 일정을 이어간다.

엑소 태국 콘서트 관객과 기자회견 현장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제공

/김지민 기자 langkim@

DRAMAcube

FARGO

매주 토요일 밤 12시

[셜록] 마틴 프리먼 주연

tcast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용화·이종현·이정신·강민혁

씨엔블루 아시안게임 폐막식 무대

씨엔블루가 아시아인들에게 K밴드의 매력을 전한다.

씨엔블루는 다음달 4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국내 밴드로는 유일하게 폐막식에 참가한다. 이미 왕성한 해외 활동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실력파 밴드로 인정받고 있는 씨엔블루는 이번 폐막식 무대에서 한류 록 밴드의 폭발적인 사운드를 각인시킬 예정이다.

씨엔블루는 지난해 국내 밴드 최초로 월드투어 '블루 문'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한류를 대표하는 밴드로 자리잡았다. 아시안게임 폐막식 이후 다음달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본 아레나 투어 '웨이브'를 진행한다.

/유순호기자 suno@

힙합 대세 스윙스 또 새 파트너 호흡

유성은과 '마이 시크릿 호텔 OST' '트랩'서

래퍼 스윙스와 차세대 R&B 디바 유성은이 만났다.

15일 정오 스윙스와 유성은이 tvN 월화드라마 '마이 시크릿 호텔'(이하 '마시호')의 세 번째 OST '트랩'을 발표했다.

'트랩'은 '마시호' 5회에서 남상효(유인나 분)와 구해영(진이한 분)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 회상 장면과 자신의 약혼녀 때문에 상처받은 남상효를 위로하는 구해영의 테마송으로 삽입된 곡으로 유성은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스윙스의 랩 라인이 돋보인다.

스윙스와 유성은은 각각 힙합과 R&B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티스트. 이번 노래가 드라마 팬뿐만 아니라 음악팬까지 사로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랩'은 '한 여름 밤의 꿀'을 만든 코스믹 사운드와 펀치 사운드가 공동 프로듀싱해 켜기고 소유의 '썸', 산이·레이나의 '한 여름 밤의 꿀' 등 남녀 솔로 콜라보레이션 열풍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민기자

유성은·스윙스

8명의 연예인 리얼 직장체험

tvN 새 토요예능 '오늘부터 출근' 방영

리얼리티 예능에 '3D'인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육아 예능에서 시작된 관찰 예능은 최근 군대·학교·정글까지 진출했으며 이젠 일반 회사도 리얼리티의 무대가 됐다.

tvN 새 토요 예능 '오늘부터 출근'은 8명의 연예인들이 실제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벌어지는 일들을 담았다. 김성주·은지원·박준형(god)·JK 김동욱·로이킴·홍진호·김예원(쥬얼리)·이현이 등의 출연진은 2명씩 한 조를 이뤄 서울의 한 이동통신사 4개 팀에 분산 배치됐다. 이들은 회사 선배들과 멘토들의 가르침에 따라 실제 신입 사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

수많은 공간 중에 회사를 택한 이유에 대해 고민구 PD는 15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에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요즘엔 신규 프로그램이 홍수처럼 쏟아진다. 정글도 가고 군대도 간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소재를 다뤄야 의미 있는 도전이 될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 바로 직장이다. 물론 직장을 다룬 드라마나 방송은 있었지만 그 안까지 들어간 적은 없었다. 예능으로 풀어내긴 어렵겠지만 좋은 도전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8명의 출연진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모든 직장인들이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고 PD는 촬영에 앞서 "9시부터 6시까지 촬영하면 된다"고 공지했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촬영 환경 또한 제작진 없이 카메라만 따라다녀 실제 직장 생활을 방불케 했다는 설명이다.

8명의 출연자는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야 했고 6시 칼퇴(정시 퇴근)는 꿈 같은 일이었다. 칼퇴를 가장 잘 한 멤버는 바로 로이킴이었다. 이날 로이킴은 칼퇴 비결에 대해 "오후 6시까지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판에 박힌 답변을 해 웃음을 자아냈다.

8명 중 유일하게 직장 경험이 있는 김성주는 "97년 3월 MBC 입사 후 약 17년 만에 다시 신입사원이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직장 생활이란 것이 인간관계와 연결돼 있어 원래 힘든 일도 참고 아쉬운 소리 못하는 것"이라며 남다른 촬영 소감을 전했다.

'오늘부터 출근'은 20일 오후 11시 10분에 첫 방송된다.

/김지민기자 @metroseoul.co.kr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63스퀘어에서 열린 tvN 초근접 직장 리얼리티 '오늘부터 출근'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박준형(왼쪽부터), 김성주, JK김동욱, 은지원, 홍진호, 이현이, 예원, 로이킴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god 콘서트 더 크게 한번 더

내달 25일 잠실주경기장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콘서트를 개최했던 god가 다음달 앙코르 콘서트로 다시 한 번 팬들과 만난다.

다음달 25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앙코르 콘서트는 god의 데뷔 15주년 프로젝트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이자 3집 '챕터 3'의 마지막 공연 활동이 될 예정이다.

콘서트 관계자는 "god 멤버들이 뜨거운 환호를 보내준 팬을 위해 장소를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으로 옮겨 더 많은 팬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앙코르 공연의 오프닝 무대는 더욱 화려하게 만들 예정"이라며 "확장된 돌출 무대와 2층 관객을 위한 특별 보조 무대를 설치하는 등 팬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god 15주년 리유니온 콘서트-앙코르' 티켓 예매는 16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J

영화 '5일의 마중'과 '소년, 소녀 그리고 바다' '지미스 홀'

거장들이 꾸민 '풍성한 가을 극장가'

中·日·英·佛 대표 감독 작품 개봉

대작들로 시끌벅적했던 극장가가 가을의 시작과 함께 새 단장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해외 거장 감독들의 신작들이 대거 개봉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거장의 완숙한 연출력으로 빚어낸 작품들이 올 가을 극장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전망이다.

다음달 9일 개봉하는 영화 '5일의 마중'은 세계 3대 영화제를 석권한 중국의 거장 장예모 감독의 신작이다. 장예모 감독은 데뷔작 '붉은 수수밭'으로 베를린영화제 금곰상을 수상하고 '인생'으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중국 5세대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이다.

'5일의 마중'은 매월 5일에 기차역에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이야기를 그린 멜로드라마다. 중국 출신의 세계적인 배우 공리가 주연을 맡았다. 장예모 감독과 공리는 '황후화' 이후 '5일의 마중'으로 7년 만에 재회해 화제를 모았다. 올해 칸영화제 비경쟁부문에 초청돼 호평을 받았다.

칸영화제에서 인정받은 가와세 나오미 감독의 신작 '소년, 소녀 그리고 바다'도 다음달 9일 극장가를 찾는다. 가와세 나오미 감독은 첫 장편영화 '수자쿠'로 칸영화제 신인감독상을 수상했으며 '너를 보내는 숲'으로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일본을 대표하는 감독이다.

'소년, 소녀 그리고 바다'는 신비로운 섬 아마미오오시마를 배경으로 해변에서 떠오른 시체를 발견한 소년과 소녀가 삶과 죽음의 과정을 겪으며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다뤘다. 올해 칸영화제에서 아시아 영화로는 유일하게 경쟁부문에 올라 화제가 됐다.

영국의 거장 켄 로치 감독의 신작 '지미스 홀'도 다음달 9일 개봉을 확정했다. 켄 로치 감독은 칸영화제 경쟁 부문 12회 진출의 최다 초청 타이틀을 지닌 감독이다. 노동자들의 이야기부터 스페인과 아일랜드 내전, 실업과 복지 문제 등 역사와 사회 전반 위에 걸친 주제들을 사실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하게 그려왔다.

'지미스 홀'은 1932년 아일랜드의 한 시골 마을을 무대로 마을회관을 지키려는 리더 지미의 이야기를 그린 실화 바탕의 영화다. 켄 로치 감독은 특유의 사실적인 연출 방식에 로맨틱하고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더해 아주 특별한 영화를 탄생시켰다.

빔 벤더스와 짐 자무쉬 감독의 영화에서 조감독으로 활약했던 클레르 드니의 2013년 작품 '돌이킬 수 없는'은 오는 25일 개봉한다. 복수를 준비하는 한 남자가 당하지 말아야 할 여자를 당하게 되면서 맞이하는 파멸을 그린 느와르다. 지난해 칸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설경구·여진구 '서부전선' 조우

'추노' '해적' 각본 쓴 천성일 감독 데뷔작

배우 설경구, 여진구 주연의 영화 '서부전선'(감독 천성일)이 지난 5일 경기도 양주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다.

'서부전선'은 1953년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남과 북의 병사가 서부전선에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영화 '7급 공무원'과 '해적: 바다로 간 산적', 드라마 '추노'의 각본을 쓴 천성일 감독이 직접 메가폰을 잡는 작품이다.

설경구는 기밀문서를 전달하는 작전에 투입된 남한군 병사 남복 역을, 여진구는 북한군 전차부대 소년병 영광 역을 맡았다. 두 배우는 첫 촬영부터 캐릭터에 완벽하게 녹아든 모습을 보여 앞으로의 연기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천성일 감독은 "영화의 본질이 관객에게 재미를 주는 것인 만큼 현장 또한 재미있게 촬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진구는 "첫 촬영이라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이 잘 챙겨줘서 편하게 촬영을 마쳤다"며 "전쟁영화라 위험한 장면들도 있을 텐데 한 분도 다치지 않고 몸 건강히 촬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부전선'은 내년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조진웅·김성균 '우리는 형제'

장진 감독 코미디 내달 개봉

조진웅, 김성균 주연의 영화 '우리는 형제입니다'(감독 장진)가 다음달 23일 개봉을 확정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는 30년 동안 헤어졌다 극적으로 상봉한 두 형제가 30분 만에 사라진 엄마를 찾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잃어버린 형제애를 찾아가게 된다는 내용의 코미디 영화다.

그 동안 여러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던 조진웅, 김성균은 '우리는 형제입니다'에서 카리스마를 벗고 코믹 연기로 새로운 변신을 꾀했다. 30년 만에 목사와 박수무당이라는 극과 극의 직업으로 만난 두 형제가 겪는 해프닝, 그리고 예측불허의 카메오 캐릭터들의 등장으로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지난 6월 '하이힐'로 감성 느와르에 도전했던 장진 감독은 '우리는 형제입니다'로 오랜만에 자신의 주특기인 코미디를 선보인다. 조진웅, 김성균 외에도 김영애, 윤진이 등이 출연한다.

/장병호기자

바비 인형 통해 인간 본연 탐구

로잘린 송 '카운터펫 칙스' 展 23일 개막

숨겨진 욕망과 페티시즘을 통해 인간 본연에 대해 탐구하고 조망하는 작가 로잘린 송(송재은)의 전시회 '카운터펫 칙스'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서울 갤러리신교에서 열린다.

로잘린 송은 2010년 영국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피 어워즈에서 파이널리스트 상을 수상한 실력파 포토그래퍼다. 2011년에는 아트스페이스 휴에서 '피닉스' 전을, 2013년에는 개러지 갤러리에서 '틴티드 판타지'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인간의 시작은 성'이라는 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선택한 오브제는 마텔 사의 인형 '바비'다.

로잘린 송에게 바비 인형은 스스로의 매력을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표상이다. 다만 인간과 바비 인형 사이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매력과 욕망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다뤘다.

전시회 주최측 관계자는 "이 전시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매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무엇에 열광하는지 경험해보았으면 한다"며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매력을 발견해 스스로에게 생기와 자신감을 부여하는 과정이 현대인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19세 배짱 소녀 '5억짜리' 버디 퍼트

김효주 LPGA 메이저 에비앙 챔피언십 역전 우승

김효주(19·롯데)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비회원 자격으로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김효주는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 레뱅의 에비앙 마스터스 골프클럽(파71·645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1언더파 273타로 백전노장 카리 웹(호주·10언더파 274타)에 1타차로 역전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올 시즌 한국 무대에서 3승을 올리며 상금 8억원을 돌파한 김효주는 이번 대회 우승 상금으로 한번에 48만7500 달러(약 5억417만원)를 거머쥐었다. 김효주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LPGA 투어 정식 멤버 가입을 신청하면 5년간 투어 출전권을 얻는다.

한국 선수가 비회원 자격으로 LPGA 투어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08년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신지애(26), 2011년 US여자오픈에서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LPGA 투어 메이저대회에서 역대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우승한 김효주는 세계랭킹도 20위에서 10위로 뛰어올랐다.

김효주의 돌풍은 1라운드부터 시작됐다. 그는 1라운드에서 10언더파 61타를 치며 메이저대회 최소타 기록을 세웠다. 2라운드에서 잠시 주춤했지만 3라운드에서 다시 선두를 되찾으며 신예답지 않은 안정된 경기운영을 보였다.

메이저대회를 일곱 차례나 제패한 웨브와 챔피언조에서 맞붙은 김효주는 마지막 18번홀까지 1타 뒤진 2위에 머물렀지만 두둑한 배짱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김효주는 18번홀에서 회심의 두 번째 샷을 홀 4.5m 앞에 붙였고 이를 버디로 연결시켰다. 그러는 사이 웨브는 세 번째 어프로치 샷을 홀 2m 밖으로 내보냈고 파퍼트마저 놓치며 김효주에게 우승을 내줘야 했다.

김효주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에비앙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우승한 뒤 태극기 앞에서 우승컵에 입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김효주는 국가대표 시절부터 한국여자골프를 이끌어갈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던 선수다. 17세이던 2012년 4월 KLPGA 투어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천재성을 보였다. 그해 10월 프로 무대에 뛰어든 김효주는 2개월 만에 현대차 차이나 레이디스 오픈에서 우승하며 명성을 이어갔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LPGA 출전권문인 퀄리파잉스쿨을 건너 뛴 김효주는 일단 올해 국내 무대에 주력한 뒤 내년에 본격적으로 미국 무대를 노릴 계획이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참으로 아득한 KIA의 미래

KIA에 대한 우려의 눈길이 많다. 지난 2009년 우승, 2011년 4강 이후 3년 내내 가을 야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12시즌 5위에 그쳤고 2013시즌은 1위를 달리다 8위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꼴찌위기까지 몰려있다. 이제는 아무도 KIA를 강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선동열 감독의 부임 이후 벌어진 일들이지만 더욱 크게 보면 해태 인수 이후 누적되어온 문제가 빚은 것이다. 첫 번째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좋은 선수를 데려오지 못했고 선수들도 키우지도 못했다. 좋은 선수를 뽑아도 발전한 선수들은 몇몇이 되지 않았다. 스카우트와 육성 실패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두 번째는 강한 지도력도 없었다. 전력이 좋을 때는 누구든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위기에서는 이를 헤쳐가는 능력있는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이다. KIA는 이것이 부족했다. 최근 선동열 감독에게 쏟아지는 비판이다.

선수들도 색깔이 없다. 타 팀에서 이적해온 수십억 짜리 FA들이 팀의 근간을 이루고 대신 프랜차이즈 출신 스타가 퇴장하면서 고유의 팀 문화가 사라졌다. 팀을 이끄는 리더도 없고 선수들도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강하지 못했다. 부상을 안고 살았고 자기관리에도 소홀했다. 팀보다는 자신을 생각하는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구단은 시즌을 마치면 정비 작업에 들어간다. 기계적으로 사령탑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프런트와 선수단이 머리를 맞대고 처음부터 시작하려는 대혁신이 필요하다. 작년부터 스카우트와 육성시스템 구축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제 씨앗을 뿌리는 단계이다. 결실을 거두려면 수 년을 기다려야 한다. KIA의 앞날이 참으로 아득하다.

/OSEN 야구전문기자

'한국 메시' 이승우 질주 계속된다

U-16 축구대표 17일 시리아 상대 AFC 준결승

'한국 메시' 이승우가 중동의 강호 시리아의 골문을 겨냥한다.

최진철 감독이 이끄는 U-16 축구 대표팀은 17일 오후 6시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시리아를 상대로 2014 아시아축구연맹(AFC) U-16 챔피언십 준결승을 치른다.

시리아 성인팀은 국제축구연맹(FIFA) 순위에서 147위로 약체지만, 이번 대회에 나서는 U-16 팀은 매서운 기량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8강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을 5-2로 대파하며 중동을 대표하는 강호로 급부상했다.

이승우가 14일 일본과의 경기에서 골을 성공시킨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리아를 상대할 한국은 이승우의 원맨쇼에 또 한번 기대를 걸고 있다. 이승우는 결과누적으로 결장한 지난 6월 오만과의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제외한 나머지 3경기에서 4골을 몰아넣으며 이번 대회 최고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14일 숙적 일본과의 8강전에서 전반 41분 결승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2분에는 60m 단독 드리블로 골을 넣는 진기에 가까운 기량으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이승우의 활약을 앞세운 대표팀은 4강에 오르면서 2015년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출전권까지 획득했다.

한국이 AFC U-16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것은 2002년이 마지막이다. 2008년 대회 이후 6년 만에 4강에 오른 한국은 내친김에 12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은 14일 승부차기 끝에 이란을 제압하고 4강에 진출했다. 북한은 17일 호주와 준결승을 치른다. 한국과 북한이 나란히 결승에 진출하면 사상 첫 남북 결승전이 성사된다.

/신화철기자

김자인 세계선수권 리드 우승

한국 선수 최초…월드컵 이어 최강 입증

'암벽 여제' 김자인(26)이 마침내 세계선수권 리드 부문 정상에 섰다.

김자인은 15일(한국시간) 스페인 히혼에서 열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리드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그간 IFSC의 월드컵대회에서는 독보적인 기량으로 세계 최강자였던 김자인은 2012년 이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나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리드 부문에서는 모두 준우승에 머무르며 유독 세계선수권과는 인연이 없었다.

개인 통산 여섯 번째로 출전한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유일하게 '결승 완등'을 기록하며 우승해 그 의미는 남달랐다. 결승전 마지막 순서로 나선 김자인은 48번째 홀드를 잡아 우승을 확정했지만 마지막 홀드까지 잡아내며 자신의 우승을 완등으로 장식했다.

대회 예선과 준결승에서 김자인과 경쟁했던 아나 베르토벤(18·벨기에)은 36번째 홀드에서 미끄러졌다. 마달레나 회크(20·오스트리아)와 미나 마르코비치(26·슬로베니아)는 47번째 홀드를 넘어 47+를 기록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